

3254  
920.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  
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  
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南北韓經濟現況比較 1981



研究執筆者：金 明

(亞細亞經濟研究所 研究委員)

刊行責任：李 世 震

( 調查研究室 補佐官 )

남북한 경제 비교

" 체제

남북한 비교

國土統一院

# 目 次

I. 南北韓經濟의 比較基準 .....	3
1. 比較分析上の 制約條件 .....	3
2. 總量概念의 相異 .....	6
3. 國民總生産과 國民厚生의 隔差 .....	8
II. 南北韓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 .....	11
1. 經濟體制的 比較 .....	11
2. 經濟開發戰略의 比較 .....	13
3. 經濟政策 基本路線의 比較 .....	16
III. 主要部門別 現況 比較 .....	19
1. 總量部門 .....	19
2. 財政規模 .....	23
3. 農水産部門 .....	28
4. 鑛工業部門 .....	33
5. 社會間接資本部門 .....	44
6. 貿易 및 國際收支 .....	49
7. 國民生活水準 .....	43
IV.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	56
1. 經濟開發成果 .....	56
2. 構造的 強弱點 .....	58
3. 展 望 .....	60



# I.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 1. 比較分析上的 制約條件

오늘날 「比較經濟體制」(Comparative Economic System) 下에 있는 南北韓의 經濟實像을 比較하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가 우리의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와는 根本적으로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點이 많다.

첫째, 經濟體制的 相異에서 惹起되는 問題點이 있는데, 北韓의 經濟秩序를 이해하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함에 있어서, 民間經濟部門이 存在하고 主導하는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下의 視角으로 民間經濟部門이 存在하지 않는 北韓經濟體制를 分析한다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北韓을 포함하여 대개의 社會主義國家들은 私有財産을 否定하고 있어서 財産 및 生産手段의 所有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流通秩序도 自由資本主義國家와는 크게 다른 實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流通秩序가 다르므로 해서 流通過程에서 作用하는 貨幣의 機能도 兩體制간에는 다르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貨幣의 機能이 다르기 때문에 共產主義諸國의 通貨에 對한 「換率의 適用問題 (Equilibrium Foreign Exchange Rate)가 그들의 經濟問題를 分析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에서 使用하는 經濟用語나 概念이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經濟用語와 그 概念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分析에 隘路가 많은 것이다. 北韓과 더불어 社會主義國家에서 使用하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資本主義國家에서 使用하는 國民所得의 概念과는 다른 것이다. 오늘날 쿠즈넛트(Simon Kuznet) 類型의 西歐 資本主義國家의 國民所得概念은 一定期間에 國民經濟가 새로이 生産한 財貨와 用役의 「附加價值」(Net Value Added) 總額을 말하고 있는데 反하여, 朝鮮을 위시한 東歐 共產主義諸國에서의 國民所得概念은 一定期間에 國民經濟가 生産한 財貨의 單純總生産高를 말하고 있으며 더우기 서비스産業部門이 除外되고 있는 것이 特

徵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共產圈諸國의 國民所得概念을 西方概念으로 환산할때 中間材와 같은 重複計算分을 除外시켜야함은 물론 서비스部門을 投入시켜야만이 西方概念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째, 北韓에서 사용하고 있는 經濟單位가 우리가 通常적으로 사용하는 單位와 서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하는데 어려운 點이 많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織物의 生産量을 표시할때 단순히 길이(m)로만 표시하고 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正確한 織物生産量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와 類似한 例로써, 北韓에서는 發電能力을 표시할 때 發電量인 KWH만을 다루고 있어서 發電施設容量은 알수 없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經濟單位가 다르거나 편견적인 單位의 사용으로 北韓의 참된 經濟力量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네째, 南北韓간에는 産業構造와 消費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經濟力量을 比較分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主宗을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北韓의 産業을 石油의 精油量이나 消費量을 연관시켜 分析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産業發展과 더불어 消費패턴이 크게 바뀌어진 우리의 消費構造를 産業發展이 뒤쳐진 北韓의 消費構造와 比較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예를들어, 韓國에서는 筆記道具로 볼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北韓에서는 아직도 鉛筆을 使用하고 있는데, 鉛筆의 生産量만으로 南北韓을 比較한다면 그 結果는 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하는데는 資料의 貧困이 큰 問題이다.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問題點들도 資料만 충분하다면 어느 程度 分析이 가능하다고 본다.

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의 經濟力量比較에 있어서는 異質적인 體制에서

발생되는 概念 및 制度上的 差異가 비교상의 隘路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閉鎖的인 資料의 貧困에서 오는 制約이 가장 큰 問題點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各種 統計資料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 것이 特徵인데, 各種 統計資料에 대해서 保安措置가 嚴格하여 經濟政策의 立案에 參與하고 있는 高位幹部들도 正確한 資料를 갖고 있지 않는 實情이므로 外部의 專門家가 그들의 經濟現況을 分析한다는 것은 더욱 困難한 것이다.

北韓에서는 1965年부터 經濟統計를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단편적으로 金日成의 新年辭, 豫決算報告書, 經濟計劃報告書, 各種 演說文 등에서 나오는 몇개의 統計數字가 北韓經濟統計의 전부인데 그것도 基準年度 對比 指倍數로 발표하기 때문에 基準年度의 基準數値를 알 수 없어서 實數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宣傳的으로 發表하는 資料도 信憑性的 결여는 물론, 統計處理方法이 다를 뿐만 아니라 統計資料의 不連續性(時系列上的 缺如)은 北韓經濟分析의 커다란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더우기 北韓의 統計는 縱橫의 數字를 合計하면 一致하지 않거나, 正常的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納得을 할수 없는 數字가 허다하다. 지난 1974年 11月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4次會議에서 「金日成의 農村테제 發表」 10周年 記念으로 政務院總理 金一이 報告한 數字중에서 1973年, 1974年의 農業成長率이 각각 30%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數字는 農業의 特性을 고려한 合理的인 思考로는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같은 誇張된 數字를 公公然하게 強調하여 宣傳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나 北韓이 發表할 統計중에 故意的인 誇張數字가 아니라고 判斷되는 統計數字는 可及的 北韓이 發表한 統計를 그대로 引用함으로써 客觀的 事實 그대로의 結論을 導出하려고 努力하겠다.

## 2. 總量概念의 相異

### 가.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

一般的으로 한 나라 國民經濟의 總量을 把握하는데 있어서 國民總生産이라는 概念을 使用하는데 國民總生産(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 함은 一國의 國民經濟가 一定期間(1年)에 生産한 財貨와 用役에서 發生된 附加價値 總量을 貨幣單位로 算定한 額數이다.

따라서 諸國의 國民經濟를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國民總生産額이나 1人當 國民總生産額을 比較하는 것이 通常的인 方法이다.

그러나 同一한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國民總生産의 基準이 서로 比較될 수 있지만 體制가 相異한 資本主義經濟와 社會主義經濟 國家간에는 國民總生産의 概念이 同一하게 適用될 수 없는데 그것은 總量指標로서의 國民所得 概念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總量指標로서 社會總生産(GSP: Global Social Product)과 國民所得이라는 두가지 指標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들 概念은 國民總生産(GNP)의 概念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다.

社會總生産(GSP)은 國民經濟의 모든 生産單位의 總生産量을 單純하게 合計한 額數이며 그 計定上에 있어서 모든 生産單位는 外部로 부터 投入된 中間財의 價値를 控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額數를 算定하는데 있어서 中間財의 重複計算分의 程度는 算定方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는 國民經濟가 發展할수록 全體 國民總生産중에서 三次 産業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增大하게 된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서는 社會總生産概念에서 特定 3次 産業部門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 原因은 「마르크스」의 價値論에 根據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卽,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生産品 혹은 價値는 生産的 勞動(Productive

Labor)에 의하여 發生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的 勞動이라 함은 人間의 慾求를 滿足시키기 위하여 生産手段을 統制 혹은 變形함으로써 物質生産에 投入되는 勞動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따라서 物質生産과 直接的으로 關連되는 것만이 社會總生産에 包含되고 그밖의 순수 「서비스」部門은 除外되는 것이 原則이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需要의 側面에서의 支出國民所得이라는 概念도 없으므로 中間生産物의 需要와 最終生産物의 需要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生産單位의 生産物總額을 단순히 合算한 社會總生産의 概念을 使用하는 것이다.<sup>(1)</sup>

그래서 北韓에서도 生産物市場과 生産要素市場의 區分이 없으므로 해서 中間生産物도 포함된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總額을 社會總生産이라 하여 이 概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의 概念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即, 國民總生産은 「財貨 및 用役의 附加價值總額」으로 定義할 수 있어서  $GN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中間生産物}$ 이라고 表示할 수 있고, 社會總生産은 「財貨의 生産總額」이라고 定義되어  $GS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非生産的 用役}$ 이라고 表示할 수 있겠다.

#### 나. 國民所得 計算方法의 相異

自由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은 分析 目的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

---

(1) 中間生産物의 市場은 스톡크(Stock)의 市場이며 最終生産物의 市場은 플로우(Flow)의 市場이다. 國民所得은 「플로우」에 해당되며, 그중에 일부가 貯蓄되어 投資되면 「스톡크」를 그만큼 확대시키고 「스톡크」의 확대는 다시 「플로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 經濟理論에서는 「스톡크」와 「플로우」의 概念이 없으며 모든 生産物은 勞動價値를 基準으로 把握될 뿐이다. 따라서 社會總生産은 勞動價値로 把握된 生産物의 總額인 것이다.



즉, 國民總生産(GNP), 國民純生産(NNP), 國民所得(NI), 個人所得(PI), 可處分所得(DI) 등 여러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物質生産만을 重視한다는 原則下에 社會總生産의 概念을 使用하고 있으며, 그외에 國民所得이라는 概念도 使用하고 있지만 이 概念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사용하고 있는 國民所得의 概念과는 근본적으로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國家에서 쓰고 있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社會總生産에서 中間材와 減價償却費를 除外한 것이며, 國內總生産 즉 最終受領人이 누구이든 간에 國內에서 生産한 總額을 計上하고 있고 實際로 거래된 價格(要素費用이 아님)에 間接稅 形態의 去來收入金이라는 것을 包含하고 있으며, 經濟主體가 家計, 企業, 政府등으로 區分될 수 없기 때문에 補助金を 考慮치 않고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점은, 國民所得이 社會總生産額에서 中間財와 減價償却費가 除外된 概念이기는 하나 間接稅와 專賣益金の 形態와 類似한 去來收入金を 賦課할 때는 中間財이든 最終財이든 모두 포함시켜 實際 去來價格으로 集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去來收入金이 지나치게 過大하게 賦課되어 計上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去來收入金の 賦課가 部門別로 衡平을 잃고 있어서 産業部門간에 國民所得의 評價額이 衡平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農業部門이 工業部門에 비하여 過小評價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工業部門에 비하여 農業部門에는 보통 去來收入金이 賦課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農產物價格이 生産原價 以下로 策定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國民所得과 國民厚生の 隔差

國民所得이나 個人所得額을 中心으로 特定한 國家의 國民所得水準과 國民厚生 福祉水準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投資와 消費사이의 生産物의 分配面을 살펴 보는 것이 重要하다.

南北韓經濟現況을 比較함에 있어서 分明히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資本主義經濟體制가 生産活動에 있어서 能率的이며, 아울러 價格機講를 통한 資源配分이 經濟成長 또는 發展에 効率的이라는 事實이다. 이에 比하여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分配의 側面이 強調되고 있다고는 보아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國家는 國民厚生面에서 資本主義國家보다 더욱 뒤떨어지고 있다.

大部分의 社會主義國家는 「스탈린」式 「一國家社會主義」라는 目標를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重工業優先策을 經濟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重工業優先政策의 固守는 産業間의 不均衡을 深化시키고 資本의 非効率性을 增大시킴으로써 資本의 浪費가 심하고 결국 消費財의 不足과 消費水準을 低下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體制나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에 따라서 實質적인 面의 國民厚生은 判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1人當 GNP로서 異質적인 體制의 經濟力을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問題點이 內在되어 있음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이미 1950年代末에 「아브라모비츠」(Moses Abramovitz) 教授가 美國과 蘇聯의 經濟力을 比較하면서 하나의 問題點으로 제기시킨 것을 상기해 볼 必要가 있다. 「아브라모비츠」教授는 個人當 國民所得 으로서는 蘇聯의 1人當 GNP가 美國의 그것에 비해 約 40% 水準에는 있으나, 國民厚生面에 있어서의 消費生活의 격차는 約 1/7 水準에 不過하다고 指適한 바가 있다.

結局 1人當 GNP 즉, 生産水準의 격차보다 1人當 消費 즉 生活水準의 격차가 더욱 격심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閉鎖的 社會에서 극도의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한 결과, 60年代에는 經濟開發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어 내어, 結果적으로 生活의 犧牲을 강요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軍需産業主導型 經濟로 치우친 北韓에서 1人當 GNP의 增加는 北韓住民들의 生活水準이나 福祉厚生 向上과는 별로 큰 相關이 없으며 南北韓 間に 存在하는 國民總生産의 隔差보다 厚生福祉水準의 隔差는 더욱 큰 實情에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總量指標의 概念 相異 및 制約으로 말미암아 南北韓 經濟現況比較에 많은 問題點이 內在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南北韓 經濟現況을 比較할 項目을 가능한 限 同一化시키고 特히 資料의 處理에 있어서는 北韓이 發表한 數字를 그대로 認定하면서 다만 지나치게 誇張되었거나 相互 矛盾된 數字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資料 및 與件등을 勘案하여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함으로써 最大限으로 客觀化 시키는 方向에서 努力하였다.

## II.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

### 1. 經濟體制的 比較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盤위에서 「價格機能」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를 말한다. 따라서 個人的合理的인 利潤追求를 經濟活動의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에 國民經濟에 있어서 投資와 生産活動의 主體는 民間企業이 위주가 되고 있으며, 모든 經濟活動은 價格機構에 의한 自由競爭의 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價格機構를 통한 自律的인 資源配分과 利潤動機에 입각한 創意的인 企業活動은 經濟發展에 있어 매우 能率的인 說明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함으로써 中央集權的 計劃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르크스」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蘇聯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이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經濟의 成長이나 發展보다도 分配의 問題에 力點을 두어 「均貧狀態」를 故意的으로 操作하거나 追求한다. 그러면서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는 經濟가 發展하면 貧益貧과 富益富가 擴大되어 일반대중은 貧困과 기아에 시달리며 少數의 資本家階級들만이 富(Wealth)를 누리는 顛倒된 社會를 形成하게 된다고 主張한다. 여기서 顛倒된 社會란 本來 勞動者가 支配해야 할 社會에서 資本家가 支配하고 있는 것은 主客이 顛倒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勞動者들의 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共同社會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된 先進國에서는 共產化의 威脅이 없고 오히려 東南亞나 「아프리카」와 같은 後進된 地域이 共產化의 威脅을 받게 된다는 事實은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發展될수록 矛盾에 직면하기 때문에 革命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主張과 다른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즉 共產主義는 高度의 資本主義에 成功한 先進國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반면에 資本主義의 發展에 失敗한 後進國에서 발붙일 수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로스토크」(W.W.Rostow)는 共產主義를 資本主義의 發展에 失敗한 나라들이 감염되기 쉬운 「過渡期의 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現在 共產國家들인 朝鮮, 中공, 東歐諸國, 월맹, 北韓등의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이 資本主義의 發展을 거쳐서 共產國家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어쨌든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는 生産手段의 私有가 許容되지 않으며, 모든 資源의 配分, 職業의 選擇, 價格의 決定등이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의 經濟體制도 「마르크스」의 理論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는데 이러한 北韓 經濟體制의 基本的인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産手段의 國·公有化를 들 수 있다. 北韓은 지난 1950年代 後半에 들어 와서 모든 個人의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制限·改造」라는 3段階의 欺瞞戰術을 구사하여 완전히 소멸시켰으며 壓力과 強制手段으로서 國營 또는 協同團體에 흡수하였던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農業生産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으므로 해서 모든 生産指標와 生産活動은 中央의 劃一的인 管理下에 統制되고 있다. 이러한 中央集權的 經濟管理體制는 計劃機構와 執行機關간의 矛盾, 上部機關과 下部生産單位 사이의 마찰은 물론 生産單位에 있어서의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招來함으로써 經濟成長을 沮害하고 있다.

셋째, 中央當局에 의해 政策的으로 公定된 價格은 生産과 消費의 調節機能을 갖지 못하며 勞動價値說은 그자체의 모순으로 商品의 品質을 測定할 基準이 없기 때문에 品質管理가 없는 量的인 目標達成에 치중하게 되고, 나아

가서 利潤動機가 없는 生産活動은 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排除함으로써 生産性を 低下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나 東歐諸國에서는 이와 같은 生産能率의 低下를 방지하기 위하여 1960年代 初半부터 生産單位에 利潤原理를 適用시키고 決定機能을 下部機構에 어느정도 分散시키는 등, 體制內部的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制度上의 改革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社會主義國家가 資本主義의 原理를 一部 導入하는 것이기 때문에 「修正主義」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아직도 1930年代에 蘇聯이 취하였던 原始的인 中央集權의 計劃管理體制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이것은 「스탈린」이나 「레닌」의 傳統的 共產主義를 繼承하는 것이므로 「教條主義」라고도 부른다.

## 2. 經濟開發戰略의 比較

### 가. 對外指向과 對內指向

우리는 開發初期에 投資財源이 不足하여 海外資本協力을 통한 投資의 擴大를 期하였으며, 또한 自然資源도 항구적으로 결핍된 形편이므로 계속해서 對外貿易을 擴大시킴으로써 對外指向的인 經濟開發 즉 內實을 기함과 아울러 外向的 成長(Outward-Looking Growth)을 追求해 왔다. 이와 같은 外向性開發戰略의 結果 韓國은 지난 60年代와 70年代에 劃期的인 輸出伸張을 記錄하였고 輸出産業이 主導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1960년에 3.200萬弗에 불과했던 輸出額이 1980년에는 172億弗에 이르게 되었으며 輸出商品의 構造도 91%가 工產品으로 構成되어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實證하였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原始的 形態의 閉鎖體制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다. 1966年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

鎖體制를 強調하였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體制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式的 「一國家社會主義」를 教條적으로 모방한 것이며, 한편 1960年代 中盤期부터 共產圈諸國으로 부터의 원조가 중단됨으로써 孤立的인 閉鎖體制는 한층 強化되었다.

그러나 國土가 협소하고 資源이 不足한 國家에서 對外貿易에 의지하지 않는 對內指向的 成長에는 限界가 있으며 北韓의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가장 큰 險路의 하나는 이러한 閉鎖體制의 固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閉鎖體制」를 固守하고 對內指向的 開發만을 추구한 결과, 1980年의 輸出額은 불과 14億弗로 韓國의 12分の1 水準이며 1970年代에 들어와서 經濟沈滯를 타개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을 시도하여 外資導入을 추진하였으나 對內投資與件未備로 인한 受容能力의 부족으로 償還能力이 한계에 직면하여 外債償還에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이룩하지 못한 國家가 外資導入에 依存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단적으로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 나. 工業化戰略의 相異

우리 韓國은 開發初期에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우선 조성하고, 投資財源의 원활한 調達을 위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經濟協力の 擴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積極적으로 開放體制로 이행하여 輸出伸張에 注力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의 進路인 工業化의 方向에 있어서도 第1次計劃期間(1962~66年)에는 電力, 石炭등 에너지資源과 肥料등 基幹産業, 鐵道, 道路, 港灣, 通信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을 확충하였고 수출증대와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 주력하면서 農業生産基盤을 확충하였으며 第2次計劃期間(1967~71年)에는 鐵鋼, 電子등 工業構造의 高度화와 輸出産業主導의 高度成長, 高米價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증대를 期하였으며 第3次計劃期間(1972~76年)에는 造船, 製

鐵, 機械 등 重化學工業의 育成, 國土의 綜合開發, 科學技術의 革新, 새마을運動 등 우리의 現實과 開發戰略에 알맞는 工業化를 단계적으로 推進하였다. 그리고 第4次計劃期間(1977 ~ 81年)에는 그동안의 開發基盤과 國民의 開發意志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經濟의 自力成長構造를 實現하며, 投資財源의 海外依存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國際收支를 擴大 均衡시키며 產業構造를 더욱 高度化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第5次計劃期間(1982 ~ 86年)에는 技術開發을 擴大하고 能率을 極大化하여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고 社會開發을 적극 推進하여 國民生活水準의 衡平的 向上을 추구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社會主義諸國중에서도 가장 硬直的인 經濟體制를 持續하고 있는 北韓은 처음부터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實施하여 輕工業과 住民福祉를 犧牲시키고 나아가서는 부문간의 격심한 不均衡으로 計劃遂行에 차질을 빚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1961년부터 70년까지 10年間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의 配分은 무려 8 : 2의 심한 不均衡을 나타냈으며, 70年代에 들어 와서도 軍需產業과 關聯된 重工業에 편중된 결과, 住民들의 消費生活이 犧牲된 것은 물론, 1961년부터 始作된 7個年 計劃은 당초의 目標를 實現치 못하여 期間을 3年이나 연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後 1970年代에 들어 와서 71년부터 시작한 6個年計劃에서도 軍需產業과 關聯된 重工業優先政策을 完化하지 않아 6個年計劃을 75年8월에 中斷하고 76年과 77年을 產業間에 심화된 不均衡을 是正하는 緩衝期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1977年12月 現 李鍾玉內閣이 들어서면서 金一內閣의 無理한 計劃目標를 다소 下向調整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工業化戰略의 變化는 없는 것으로 評價된다.



### 다. 國民厚生과 國防優位

韓國經濟는 自由企業의 原則을 토대로 하여 輸入代替産業, 輸出産業, 重化學工業등 民間企業을 주축으로 단계적인 工業化過程을 추구하였으며, 政府는 이와 같은 工業化를 支援하기 위하여 基幹産業과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기하는데 注力하였다. 또한 1960年代初의 開發初期부터 農業生産의 基盤을 擴充하기 위하여 水利施設, 耕地整理와 肥料의 增産과 農業의 機械化에 힘썼고 1968年부터는 農漁民所得増大事業과 高米價政策으로 農漁民所得의 획기적인 増大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經濟가 工業化와 農業開發에 있어 經濟構造에 따라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經濟開發을 추구하여 왔음에 비하여 北韓에서는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과 軍事力強化를 위한 消費財産業의 犧牲을 강요하였다.

北韓은 이른바 「經濟力發展과 軍事力強化를 併行한다」는 「國防·經濟併進政策」을 내걸고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軍事力強化 爲主의 工業化를 實施해 왔던 것이다.

그결과 北韓은 軍事費를 現實的으로 발표한 1968년에는 歲出豫算의 32.4%인 6億676萬弗의 軍事費를 支出함으로써 GNP의 23.6%나 차지하였으며 당시의 1人當 GNP가 194弗 水準이었는데 軍事費의 1人當 負擔額은 約 45.9弗에 이른 것이다.

### 3.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比較

南北韓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을 보면, 韓國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를 國民福祉의 向上과 自立經濟의 達成에 두고 있으며 具體的인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는

첫째, 安定基調위에서의 成長追求란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波動으로 惹起된 지난 1973年末 以後와 같은 國際的인 不況에도 불구하고 1974年에 經濟成長率 8%란 高度成長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政策을 強力히 推進하여 工業基盤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4년에 26萬t級の 油槽船을 建造하였는가 하면, 輸出商品의 91%가 工產品으로서 産業構造가 高度화된 것이다.

셋째,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政策을 追求하는바 1960年代의 第1, 2次 經濟開發計劃을 통하여 農漁村에서의 貧困과 沈滯의 惡循環을 打破하려고 努力하였다.

따라서 工業立國의 基盤을 닦는데에 總力을 기울이는 한편 1968년부터 農漁民所得增大事業을 着手하여 第3, 4, 5次 經濟開發計劃에서도 農漁村의 革新的 開發을 主要한 目標로 내세우고 있다.

네째,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한다. 그래서 지난 20餘年間 輸出은 획기적인 伸張을 보였고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이 韓國經濟의 發展을 主導하였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960년에는 3,200萬弗에 불과하였던 輸出額이 1980년에는 172億弗에 이르는 놀라운 擴大를 이룩한 것이다.

한편 北韓의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는

첫째, 閉鎖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것인데 北韓은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 부터 自力更生の 原則을 堅持하여 왔다. 生産手段에 대한 國內需要를 기본적으로 自體內에서 充足시키고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物質的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の 原則 즉 閉鎖體制의 固守는 國際分業의 利點을 度外視하게 되어 必然的으로 孤立的인 經濟體制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孤立된 閉鎖體制의 追求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一國家社會主義」를 그대로 模倣한데 기인한 것이다.

둘째, 重工業優先政策의 繼續的인 追求인데, 본래 重工業은 一次産業과 輕工業의 뒷받침 위에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되어야 效果的인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 北韓은 이와 같은 基盤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初期부터 自力更生の 原則과 함께 追求하여 왔다.

結局 重工業優先政策은 軍需産業 育成과 연관되어 武力赤化統一을 公言하고 있는 그들에게 政策的 名分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그 結果 産業不均衡의 深化와 資本의 浪費로 因한 經濟沈滯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은 耐乏生活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 政策을 계속적으로 推進하므로 輕工業의 犧牲으로 住民生活은 더욱 窮乏한 實情에 있는 것이다.

세째, 國防과 經濟의 併進政策을 들수 있다.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全員會議에서 4大軍事路線을 採擇하고 60年代 中盤期에 共產圈의 理念紛爭과 中·蘇紛爭의 격화로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經濟發展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더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하여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政策이 추진된 것이다.

이와 같은 「國防·經濟併進政策」은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公式化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經濟發展과 軍事力 強化를 同時에 追求하려면 필 수적으로 住民의 經濟生活의 消費部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北韓住民의 消費生活 窮乏現狀은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과 「國防·經濟併進政策」의 계속 적인 推進의 結果라고 하겠다.

### Ⅲ. 主要部門別現況比較

#### 1. 總量部門

##### 가. 概況

南北韓의 人口는 1980年末 現在 韓國이 38,124千名, 北韓은 17,800千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은 韓國이 1.57% 北韓은 2.5%로서 韓國보다 北韓이 상당히 높다. 經濟活動人口는 韓國이 14,454千名으로 總人口의 37.8%, 14歲이상 人口의 57.05%이며, 北韓은 80年末 現在 5,469千名으로 總人口 17,800千名の 30.5%로써 동년 韓國의 37.8%보다 低率이다.

이것은 최근 北韓에 勞動力 부족현상이 發生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勞動力이 부족한데 총인구에 대한 經濟活動人口가 적다는 二律背反的인 현상은 두가지의 理由때문일 것이다.

첫째, 韓國은 人口增加率이 1962년에는 2.9%나 되었으나 80년에는 1.57%로 현저히 낮아져서 人口增加率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總人口에 대한 14歲이상 人口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으나 北韓은 현재까지도 人口增加率이 높기 때문에 14歲이상 人口의 比率이 韓國보다 낮다고 推定할 수 있으며 따라서 經濟活動人口의 比率도 적을 것이다.

둘째, 北韓은 戰爭準備의 강화로 인하여 14歲 이상의 勞動可能人口중 많은 人力이 軍복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活動參加率도 韓國보다 오히려 低率일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 같은 人口構造外에도 北韓은 生産方式이 勞動集約的이기 때문에 그만큼 勞動力需要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勞動力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國土面積은 한반도 전체가 22萬 $km^2$ 인데 이중 韓國의 面積은 98,966  $km^2$ 이고, 北韓은 122,370  $km^2$ 로서 韓國이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 있어서는 韓國은 相對적으로 平野지대가 많고 氣

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面에서 유리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더우기 國土의 綜合開發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과 全國이 1日生活圈에 속하는 고속도로망의 完成등으로 國土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比하여 北韓은 國土의 利用에 불리한 條件과 開發에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약 90%의 鑛物資源이 北韓에 편재되어 있고 水力資源도 풍부하여 工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월등히 유리한 立場에 있다하겠다

#### 나. 國民總生産

이러한 與件下에서 南北韓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體制的 相異와 開發戰略에 있어서의 현저한 差異를 갖고 독자적으로 각각 經濟開發을 추구하여 왔는데 이의 結果로서 國民總生産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國民總生産의 규모는 1980年 현재 韓國은 GNP가 574億弗이며 1人當 GNP는 1,506弗의 水準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GNP가 135億弗, 1人當 GNP는 758弗의 水準으로서 GNP는 北韓이 韓國의 23.2%, 1人當 GNP는 50%에 불과하다<sup>(2)</sup>

이와 같은 GNP의 현저한 격차는 韓國經濟가 60年代 이후 9%以上の 高度成長을 지속하였고, 특히 1973年 石油과동 이후의 世界的 不況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온 반면에, 北韓에 있어서는 최근 投資率이 35~40%의 高率임에도 불구하고 資本의 浪費와 非効率的인 投資計劃에 기인하여 經濟成長이 4~5%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은 韓國의 경우 1980년에 6.4%에 불과

---

(2) 北韓의 GNP는 지금까지 北韓이 發表한 단편적인 1人當國民所得額 및 그 成長指數를 가지고 推定하였다. 한편 1980年은 北韓의 豫算 및 決算資料를 통한 政府消費支出 및 固定資本形成, 歲出入간의 純差額을 이용한 在庫變動, 北韓住民1人當食費 및 英鎊계수와 人口數를 적용한 民間消費支出, 對外去來들 등을 토대로한 支出所得 接近法에 의해 GNP를 추계하였다.

하나 北韓은 24.4%로 엄청나게 높다. 이는 「이스라엘」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의 높은 軍事費負擔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高率의 軍事費負擔은 經濟成長面에서 生産的인 支出이 아니므로 그만큼 經濟成長을 鈍化내지 沈滯시키는 主要 要因이 되고 있다.

南 北 韓 主 要 指 標

( 1980年現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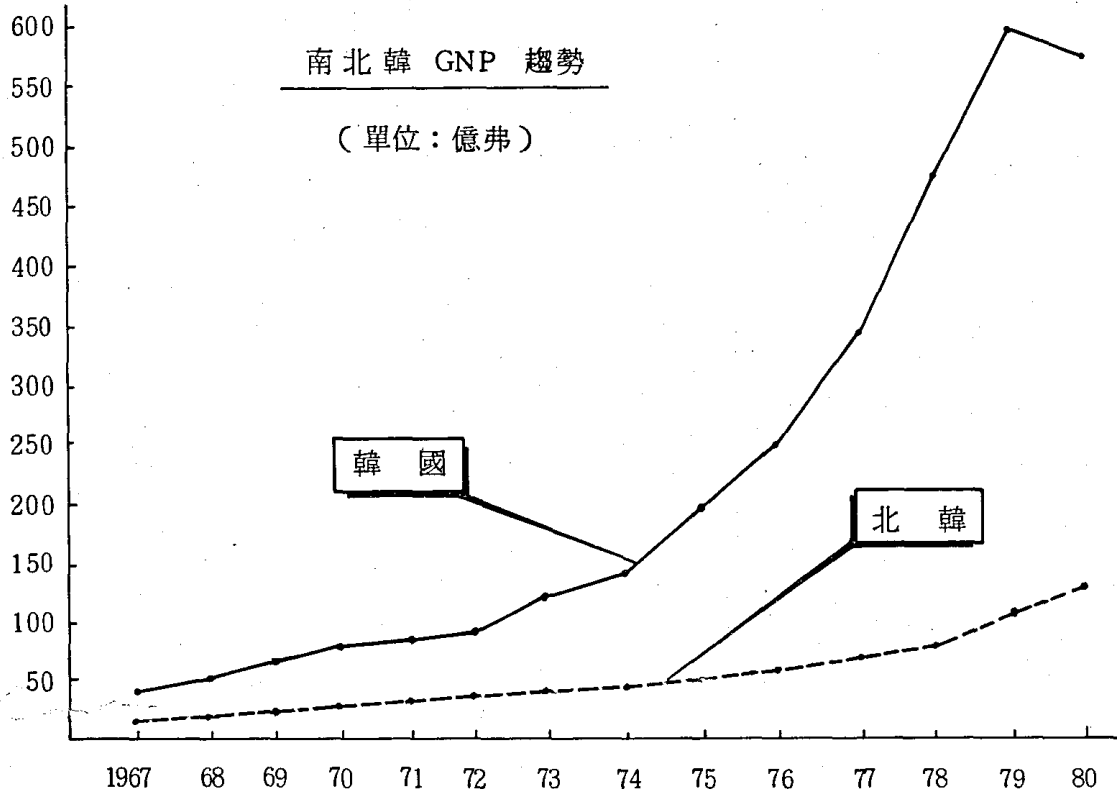
區 分	單 位	韓 國 (A)	北 韓 (B)	A : B
人 口	千 人	38,124	17,800	2.14 : 1
人 口 增 加 率	%	1.57	2.50	1 : 159
國 土 面 積	km <sup>2</sup>	98,966	122,370	1 : 1.2
G N P	億 弗	574	135	4.3 : 1
1 人 當 GNP	弗	1,506	758	2.0 : 1
軍 事 費 負 擔 率	%	6.4	24.4	
貯 蓄 率	%	21.2	37.5	

資料： 韓 國： 經濟企劃院  
北 韓： 國土統一院

韓國은 第1次計劃期間(1962~66年)중에 1975年 價格基準으로 볼때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7.8%, 第2次計劃期間(1967~71年)중에 9.7%, 第3次計劃期間(1972~76年)중에 10.1%로 成長速度를 加速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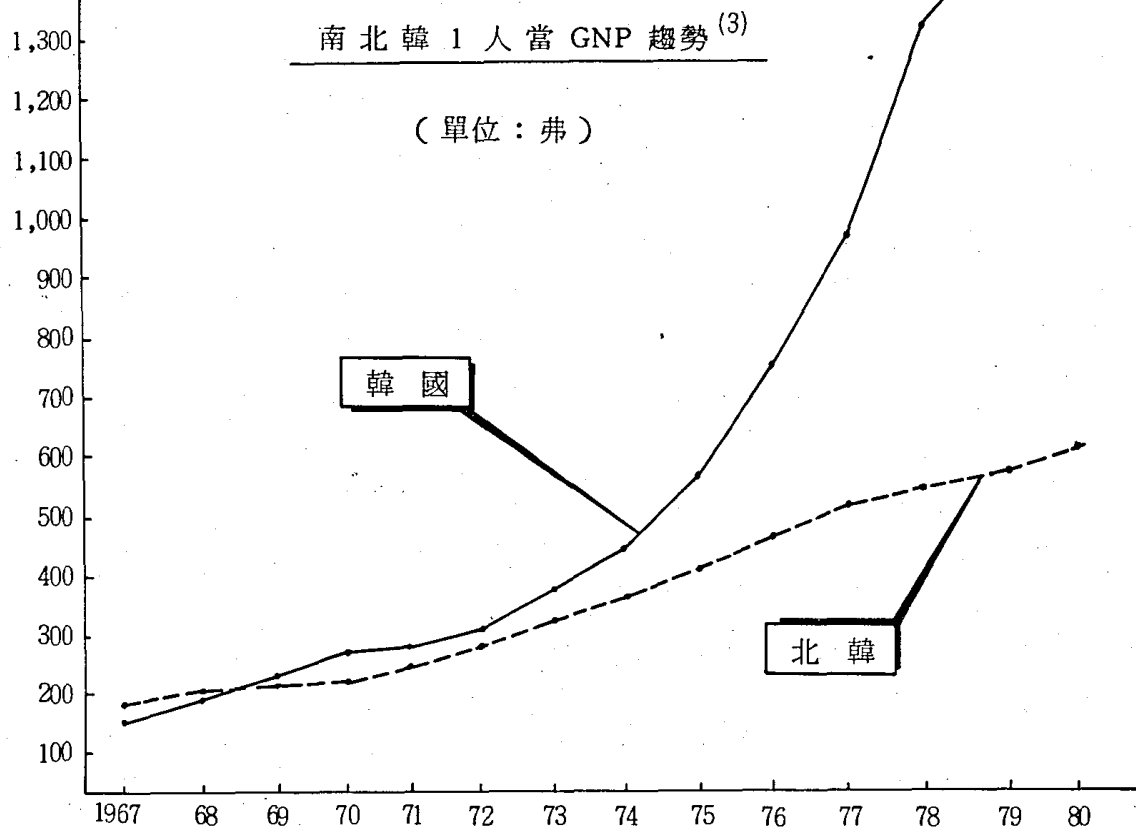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첫째, 閉鎖體制로 인한 技術導入 및 外資導入의 受容能力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對外經濟協力이 여의치 못했으며, 對外貿易伸張이 불가능하여 成長의 限界에 직면 하였고, 둘째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策으로 산업간의 심한 不均衡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兵器의 生産은 需要와 供給의 쌍방에 있어 前後方의 産業聯關效果가 없으므로 成長基盤을 造成할 수 없었으며, 셋째 병력동원에 의한 勞動力 부족으로 生産增加의 限界에 직면함으

로써 심각한 經濟沈滯現象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	46.7	58.7	70.8	84.7	87.8	100.3	130.6	150.4	199.3	269.7	351.7	473.5	610.6	574
北韓	23.9	25.7	27.6	29.7	34.7	40.8	47.8	55.8	64.0	77.2	83.2	91.9	125.1	135

위와 같은 GNP 規模의 현저한 격차는 1人當 GNP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北韓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968年까지는 GNP總量이 적어도 1人當 GNP는 韓國보다 높은 水準에 있었으나 1969年을 分岐點으로 韓國의 1人當 GNP가 北韓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점점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韓國	154.9	190.4	224.4	262.6	257.1	299.4	383.0	433.5	564.8	752.0	965.2	1,279.1	1,597	1,506
北韓	186	194	203	213	243	279	319	363	406	478	502	541	719	758

## 2. 財政規模

###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韓國은 私有財産制度和 民間經濟活動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財政의 國民經濟에서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적다. 1980年 最終豫算의 경우 全會計중 一般會

(3) 共產圈諸國은 複數換率制를 채택하여 對象別, 地域別 差等換率을 적용함으로써 購買力評價에 의한 適正換率의 산출이 불가능한 實情이다. 더우기 北韓은 外債의 累積과 輸入需要의 過多로 北韓元貨의 高評價傾向이 뚜렷하나 여기서 적용한 換率은 그들이 公式發表한것 이외에 北韓의 對西方圈貿易에서 適用되는 換率을 綜合的으로 分析·評價하여 適用하였다.



計規模는 106億弗로 GNP總額 574億弗에 비하면 18.5%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體制下的 財政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반영하며 統制하는 機能을 가진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的 北韓에 있어서 財政의 役割은 中央集權的 統制經濟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이 되고 있으므로 資本主義體制下的 韓國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北韓에 있어서의 總需要는 財政의 役割이 社會的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基本目的이 있으므로 대부분 財政需要에 의하여 充足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規模는 1980年 현재 105億弗로서 GNP 135億弗의 무려 77.8%나 된다. 이것은 同年 韓國의 財政負擔率 18.5%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것이며 이것이 社會主義體制的 財政의 特色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北韓의 財政은 GNP에서 지극히 소규모로 인정되는 個人消費를 제외한 全經濟活動을 총망라한 것이된다.

#### 나. 歲出

1980年度 韓國의 一般會計部門 歲出規模는 5兆8,430億원으로 106億弗規模이다.<sup>(4)</sup>

特別會計는 事業 또는 基金管理를 위한 것이므로 순수한 財政支出은 一般會計部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價格原理를 떠난 公共收入으로서의 歲入은 一般會計뿐이며, 기타 特別會計는 價格原理에 입각한 것이므로 民間經濟와 같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防衛費는 37億弗로서 一般會計의 35.3%를 차지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80年度 總豫算規模가 105億弗로서 韓國의 一般會計豫算과 비슷한 水準에 있다. 同年의 歲出構成費를 보면 北韓의 公式發表로는 人民經濟費 60.5%, 社會文化施策費 22.2%, 軍事費 14.6%, 機關管理費 2.7%로 되

---

(4) 最終豫算額 基準임.

어 있으나 軍事費가 人民經濟費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보면 軍事費 30.9%, 人民經濟費 44.7%로 評價된다.

北 韓 의 年 度 別 歲 出 構 成 比

(단위: %)

年度	區 分	歲 出 總 額	人 民 經 濟 費	社 會 文 化 費	軍 事 費	機 關 管 理 費
1966		100.0	68.4	17.3	10.0	4.3
1967		100.0	49.9	17.5	30.4	2.2
1968		100.0	48.8	17.0	32.4	1.8
1969		100.0	47.5	19.7	31.0	1.8
1970		100.0	47.0	19.9	31.3	1.8
1971		100.0	44.2	22.9	31.1	1.8
1972		100.0	55.5	25.4	17.0	2.1
1973		100.0	57.2	25.3	15.4	2.1
1974		100.0	57.0	24.8	16.1	2.1
1975		100.0	57.2	24.3	16.4	2.1
1976		100.0	56.2	25.0	16.7	2.1
1977		100.0	56.8	25.4	15.7	2.1
1978		100.0	57.3	24.7	15.9	2.1
1979		100.0	59.4	23.6	15.1	1.9
1980		100.0	60.5	22.2	14.6	2.7
1981		100.0	60.9	21.6	14.7	2.8

1966년부터 北韓의 歲出構成比를 公式發表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66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이었으나 67년부터 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減少되고 軍事費가 31~32%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72년 이후에는 다시 人民經濟費

가 55% 以上으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 ~ 17%로 격감하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事費가 시기에 따라 크게 變化하는 것은 必要에 따라서 軍事費가 他費目에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10% 이하로 발표해 온 軍事費를 67년부터 「國防費」로 개칭하고 그 構成費를 30.4%로 대폭 증가시켜 발표한 것은 종전에 人民經濟費등에 은폐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60年代 중반기부터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北韓이 獨自路線을 표방하면서 南侵野慾을 노골화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후 1972년부터 갑자기 軍事費가 절반으로 감소되고 人民經濟費가 다시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와 南北赤十字會談등 南北간의 接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고려하여 「平和이미지」扶植을 위해 軍事費를 他項目에 다시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的인 증거로서는 1972年 이후 人民經濟費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오히려 鈍化되었고 그렇게 크게 軍事費의 構成이 감축되었어도 戰爭準備는 반대로 強化되었음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 다. 歲入

韓國의 財政收入은 租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其他로 構成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租稅收入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1960年代에는 援助收入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75년부터 援

助財源은 완전히 없어져서 財政自立을 이룩했으며 1967年부터 租稅의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80년에는 80.6%를 租稅收入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歲入은 社會主義經理收入金으로 全歲入豫算을 充當하고 있다.

北韓은 生産活動에 수반되는 收入이 전부 財政收入이 되기 때문에 財政規模가 GNP의 70 ~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社會主義經理收入金의 내용은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所得稅, 其他 收入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각각 項目別 內容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去來收入金은 國營企業所 또는 生産工場이 商品을 生産하여 産業 및 其他生産機關에 인도할 때 징수되는 物品去來收入金으로 去來稅와 消費稅로 나누어지며 우리의 附加價值稅와 類似하다. 이는 北韓의 豫算收入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收入源이다.

둘째, 國家企業利益金이란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의 企業所 및 生産工場에서 形成되는 제품의 도매가격중에서 自體經費를 公제한 잔여기금을 稅源으로 한 것인데 총예산수입의 30% 內外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協同團體所得稅란 각종 協동단체의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利益에 부과하는 것이다.

끝으로 其他收入金은 減價償却回收金 및 罰課金등으로 構成되며 歲入總額의 7 ~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勤勞所得稅, 文藝所得稅, 地方自治稅등이 1974年까지는 歲入의 2%정도를 차지했으나 75年부터 이것을 철폐하고서 北韓은 稅金이 없는 天國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論理에 따르면 所得稅와 住民稅는 住民들이 直接 負擔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稅金을 폐지하는 것이며 다른 收入金은 共產集團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分配分이므로 稅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經理收入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論理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去來收入金이라고 부르는 間接稅形態의 비중이 歲入總額의 55% 이

상의 水準으로 이는 住民들이 租稅負擔感을 직접 느낄 수 없는 것에 불과하지 住民들의 租稅負擔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 3. 農水産部門

#### 가. 農業構造의 比較

韓國은 60年代 중반이후 重農政策을 推進하여 쌀, 보리의 自給과 農業所得의 현저한 증가를 이룩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 3次計劃期間중에는 全産業이 年平均 11%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農林水産業도 5.8%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土地面積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營農技術을 도입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자연적 제약과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의 결과, 韓國의 産業構造는 1966년까지 農林水産業의 國民總生産에 對한 構成比가 40% 이상 이던 것이 점차 줄어 1980년에는 14.2%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北韓에서는 農業經營이 協同農場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1946年 3月 15日 「土地改革實施에 관한 法令」과 「同實施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土地의 몰수와 재분배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1953년까지 형식적으로는 集團農場이 아니라 個人農場의 形態를 취하였으나 휴전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 集團農場化를 강행함으로써 현재 약 3,800個의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에 흡수되어 社會主義國家에서도 가장 경직화된 集團農場 經營체제를 이룩하고 있다.

協同農場의 作業體制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 分組 및 作業員이 있으며 1965年 11月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실시하여 착취를 위한 일종의 請負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5~20名으로 구성된 分組책임하에 모든 生産活動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勞力의 조직성을 강요함과 동시에 勞力時間과 生産結果를 綜合하여 分配수준을 결정하게 하여 저조한 生産實績을 높여 보고자 한 것이다.

北韓은 1960年代에 들어와 10年間に 걸친 第1次7個年計劃期間동안 基本建設投資額 107億원(北韓貨)중 農業部門에는 19.7%에 해당하는 29億원을 投資했으나 GNP에서 차지하는 農業生産의 비중은 5%에 불과했으며 70年代의 6個年計劃期間중에도 農業部門에 全投資額의 20%를 넘는 資金을 投資하였으나 生産額의 비중은 역시 5%정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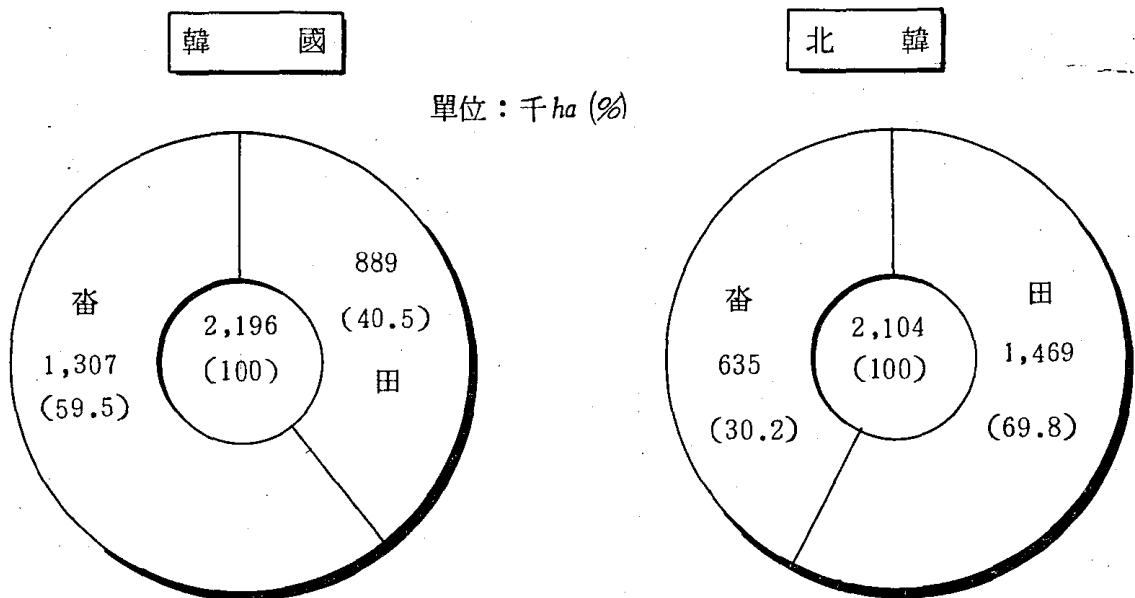
나. 農業生産基盤

1980年 현재 韓國의 경지면적은 2,196千ha로서 전 국토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은 2,104千ha로써 경지율이 16.9%로 우리보다 5.1%포인트나 저율이다.

특히 田畝의 비율은 우리는 畚이 1,307千ha로서 59.5%, 田이 889千ha로서 40.5%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우리와 반대로 田이 1,469千ha로써 69.8%, 畚이 635千ha로써 30.2%에 불과하다.

따라서 畚면적은 韓國이 北韓보다 2배이며, 田면적은 오히려 北韓이 韓國의 1.6배나 된다.

南北韓 耕地面積比較



1980年 현재 韓國의 農業人口는 10,831千名으로 全人口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2,156千戶이다.

한편 北韓은 農業人口가 7,120千名으로 全人口의 40%에 해당하며 農家戶數는 1,288千戶이다.

따라서 農家1戶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1.02 ha인데 北韓은 1.6 ha로 높은 편이다.<sup>(5)</sup>

그러나 韓國에서는 工業化의 進進으로 農業人口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1970년에 비해 80년에는 17.5%나 감소되었으나 北韓에서는 이와 반대로 매년 0.3 ~ 0.5%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農業의 機械化를 보면 韓國의 경우 第1次5個年計劃의 추진과 더불어 農業機械化가 推進되었고 耕耘機가 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1980年 현재 韓國은 耕耘機1,070千台, 揚水機 20萬台, 動力防除機 30萬台를 보유하고 있으며 北韓은 트랙타(15마력환산) 10 ~ 11萬台 및 連結農機械를 協同農場 農機械作業班들이 보유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50年代 後半부터 農業機械化에 着手하여 韓國보다 앞서 시작하였으나 그후의 발전속도는 韓國이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韓國이 耕耘機를 중심으로 기계화가 다양한데 비해 트랙타를 중심으로 획일적이어서 기계화의 효율에 있어 대단히 저조한 편이다.

化學肥料의 需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년까지 상당량을 도입하였으나 1968년부터 완전히 自給이 가능해졌으며 71년부터 統一系의 多收穫多肥品種의 開發로 소비량이 급증하여 약간 自給率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76년부터 生産過剩趨勢로 전환되었다.

현재 韓國의 施肥量은 成分含量으로 정보당 382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정보당 273 kg에 불과한 實情에 있다.

---

(5) 北韓의 경우 集團農場下에서 戶當耕地面積은 의미가 적다. 다만, 農土와 農家數를 대비한 平均面積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하겠다.

또한 韓國의 育種理論과 技術水準은 국제수준이며, 이밖에 營農技術도 크게 높아져 79年 10a (단보)당 쌀의 生産量은 451 kg이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育種理論에 있어 日帝때의 理論과 蘇聯 및 中共學者들의 理論등 3元化로 인해 혼미상태에 있으며, 營農技術도 韓國水準에 미달하여 10a (단보)당 收穫量이 370 kg水準에 머물고 있다.

이상과 같은 農業生産基盤을 綜合評價해 볼때 韓國은 畓이 北韓의 2倍로써 水稻作중심의 農業을 營爲하게 되는데 비해 北韓은 田이 韓國의 1.6倍로써 옥수수를 主宗으로 하는 田作爲主의 農業이나 전체적으로 韓國이 경지면적이 넓으며 유리한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人口1人當面積은 韓國이 6 a인데 비해 北韓은 11.9 a로서 2倍이상의 水準이며 水稻作중심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韓國이 機械化에 있어서는 다소 열세이다.

北韓의 경우 集團農場에다 田作爲主이며 더우기 勞動力不足으로 중장비기계화를 實施하였으나 韓國은 영세성을 띤 個人經營方式이며 더우기 水稻作에는 중장비의 投入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施肥量, 育種, 營農技術등의 모든面에서 韓國이 우세하여 궁극적으로 土地生産性이 높다.

### 營 農 的 現 代 化

( 1980年現在 )

區 分	韓 國	北 韓
農家戶當耕地面積	1.02 ha	1.6 ha
農業機械化	動力耕耘機 및 트랙터 1,070 千台	트랙터 ( 15 馬力換算 ) 10 万 ~ 11 万台
化學肥料施肥量 ( 정보當成分含量 )	382 kg	273 kg
쌀生産量 ( 10a 當 ) ( 1979 年 )	451 kg	370 kg

資料： 韓 國： 農水産部  
北 韓： 國土統一院



#### 다. 食糧作物生産實績

우리나라의 食糧生産實績은 土地生産性的의 向上과 함께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79年의 米穀生産量은 5,565千톤이며, 서류를 합한 穀物總生産高는 8,112千톤을 생산하였다.

北韓의 경우 生産實績發表가 粗穀概念의 알곡생산량에 한정되어 있어, 穀種別生産量이나 精穀換算率, 심지어는 薯類의 포함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따라서 農業生産基盤을 고려하여 推定해 볼 수 밖에 없는데 1980年의 경우 薯類를 합한 생산량은 3,910千톤으로 추계된다.<sup>(6)</sup>

北韓은 外貨獲得을 위한 억지수출과 備蓄米 증가를 위하여 強力한 規制를 하기 때문에 糧穀消費水準은 全體적으로 우리의 30%内外에 불과하여 1人當消費量도 훨씬 低水準에 있다.

---

(6) 「食糧作物生産量 = 植付面積 × 單位面積當收穫量」을 적용하여 推定한 것임.

南北韓食糧作物生産量

(단위: 천톤)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971	6,085	707	6,792	4,069	269	4,338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974	7,464	543	6,921	4,172	289	4,461
1975	6,932	740	7,672	4,213	215	4,428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1978	7,663	565	8,228	4,357	212	4,569
1979	7,611	501	8,112	4,574	223	4,797
1980	4,905	431	5,336	3,710	200	3,910

資料: 韓 國 : 農水産部  
北 韓 : 國土統一院

4. 鉍工業部門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戰略

우리의 經濟開發의 궁극적 目標은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으며 이는 필요한 消費生活을 可能케 하는데 있다. 우리가 生産財를 生産하는 이유도 生産財를 利用하여 보다 高級의 消費財를 보다 많이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그들의 經濟體制의 궁극적 目標은 「人民生活의 획기적 向上」에 있다고는 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 軍需産業위주의 重工業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직결된 輕工業部門의 建設을 극도로 抑制하고 있다. 이것은 住民生活의 向上을 不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産業發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韓國의 工業化過程은 1960年代初에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60年代 중반부터 輸出産業으로 전환됨으로써 高度成長을 주도하였으며 70年代에 重化學工業을 開發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工業化는 國內外市場 需要를 토대로 消費財工業을 먼저 開發하고, 다음에 生産財 生産體制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輕工業基盤이 구축되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이 확충된 바탕하에서 重工業의 획기적 發達이 이루어지고 있어 全體的으로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開發순서에 있어서 無理가 없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반대로 消費財市場을 무시하고 重工業을 먼저 開發하였기 때문에 産業構造가 均衡을 잃었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의 不備, 輕工業의 부진으로 全體의 經濟開發에도 비능률적인 結果를 초래하였다.

#### 나. 鑛工業資源

鑛工業資源면에서 北韓은 월등히 유리한 條件에 있다.

1945年 南北韓 分斷時에 重工業의 기반이 되고 있는 鐵鑛石은 90%이상 무연탄은 87%, 유연탄은 98%가 北韓에 편재되어 있었으며 풍부한 水資源과 더불어 電力生産도 92%가 北韓에서 供給되었다.

現在 南北韓의 重要 鑛物매장량을 比較하면 石炭은 北韓이 120億톤으로 韓國의 1.3億톤보다 23배나 된다.

이와 같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의 偏在를 기초로, 해방전 日本은 한반도를 大陸進出을 위한 병참기지로써 南에는 農業生産基盤을 구축한 반면, 北에는 兵器産業을 비롯한 諸資源 關聯産業을 배치시켜 韓半島의 重工業의 80%가 北韓에 集中되었으며 工業總生産額의 60%를 北韓이 占하고 있었다.

南北韓產業施設配置狀況(1944)

(단위: %)

區分	地域別		區分	地域別	
	南韓	北韓		南韓	北韓
工業總生產額	40	60	機械製作및金屬加工業	72	28
發電所	8	92	化學工業	18	82
燃料工業	12	88	建材工業	27	73
鑛石探掘業	22	78	紡織工業	67	33
冶金工業	10	90	알곡收穫高	66	34

資料: 朝鮮經濟地理(上) 140面

8.15解放은 이러한 南北韓간의 補完關係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으며 北韓은 유리한 重工業資源을 바탕으로 1960年代까지 金屬工業이 優位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資源面에서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開放體制를 바탕으로 經濟發展에 成功하여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重工業部門에서도 北韓을 능가하게 되었다.

主要鑛物埋藏量

(單位: 千噸)

區分	品位	韓國	北韓
鐵鑛石	Fe 24 ~ 50 %	126,300	3,000,000
重石	Wo <sub>3</sub> 0.5 ~ 1 %	26,000	19,123
니켈	Ni 0.3 ~ 1 %	64	256
金鑛	Au 10 g / t	1,180	2,340
銀鑛	Ag 50 g / t	6,948	15,016
鉛鑛	Pb 6 ~ 10 %	2,585	4,790
石炭	Kcal 4,500 以上	1,500,000	11,986,000

資料 韓國: 商工部鑛務局

北韓: 國土統一院

工業化의 原動力인 에너지開發에 있어서 韓國의 경우 1980年의 石炭生産 實績이 1,826萬톤인데 비해 北韓은 4,100萬톤을 生産하였으며 褐炭, 土炭과 유연탄도 우리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980年 韓國의 原油處理能力이 日産 64萬배럴이나 되나, 北韓의 경우 日産 9萬배럴 規模로 아직도 精油工業은 初期建設단계에 있을 뿐이며, 韓國이 에너지消費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비해 北韓은 石炭中心의 一元化된 消費構造를 갖고있다.

### 에 너 지 現況<sup>(7)</sup>

( 1980年 現在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比 較
發 電 設 備 容 量	만 KW	939	469	2.8 : 1
水 力	"	115.3	272	1 : 2.4
火 力	"	765	197	3.9 : 1
原 子 力	"	58.7	-	
發 電 量	億 KWH	372.8	216	3.0 : 1
精 油 能 力	(日産)만배럴	64	9	
原 油 導 入 量	年 만 톤	2,733	150	16.9 : 1
石 炭 生 産 量	만 톤	1,826	4,100	1 : 2.2
石 炭 輸 入 量	"	450	-	

(7) : 北韓의 精油能力은 勝利化學의 年産 200萬톤 能力과 烽火化學의 年産 250萬톤 能力의 統計를 배럴단위로 換算한 數值임.

다. 重化學工業現況

(1) 金屬工業

鐵鋼의 生産과 消費量은 그 나라의 國力과 工業化의 水準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이 된다. 北韓地域의 資源 및 工業立地條件의 優位로 因하여 해방 전에는 약 60萬톤의 製鐵 및 16萬톤의 製鋼施設의 90%以上이 北韓에 位置하였으며, 1970年 以前까지는 生産能力과 生産量등에 있어 北韓이 相當한 優位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1972年 포항제철공장의 第2高爐의 가동을 契機로 1973年 에는 製鋼能力이 218萬톤으로 大幅 擴張되었으며 또한 同 工場의 第3期, 第4期 擴張工事 等으로 1980年에는 1,211萬톤으로 北韓의 400萬톤보다 월 등히 앞서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銑鐵生産能力은 1980年에 338萬톤으로 韓國의 802萬톤보 다 훨씬 적다. 그러나 特殊鋼의 경우 오랜 操業經驗으로 어느정도 技術蓄 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韓國은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계속 확장과 第2綜合製鐵工場의 建設로 鋼材의 다양한 需要를 충족하고 技術水準發達과 함께 生産能力提高로 北韓이 따라올 수 없는 鐵鋼工業國家로 급속히 成長해 나가고 있다.

非鐵金屬의 경우 北韓은 鑛産物을 輸出戰略品目으로 하여 그 開發에 注力 하고 있으나 1980年 現在 銅生産量은 5萬톤에 불과하여 同年 韓國의 14.6萬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金屬工業生産(1980年)

(單位:千噸)

區 分	韓 國		北 韓	
	1974	1980	1974	1980
銑 鐵 能 力	987	8,019	2,300	3,380
粗 鋼 能 力	2,253	12,110	2,500	4,000
銅	12 (電氣銅)	146	28	50

資料 韓國:經濟企劃院  
北韓:國土統一院

## (2) 化學工業

化學工業은 당초에는 金屬工業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는 比較가 안될 만큼 韓國이 絶對적인 優位에 있다. 해방당시 北韓에는 年產 48萬톤 規模의 흥남비료공장을 비롯하여 중요한 化學工場이 있었으나 韓國은 1950年代까지 化學肥料를 全量 外國에서 導入해야만 했다.

그러나 1959年 忠州肥料工場의 建設로 化學肥料 自給의 基礎를 구축하기 始作한 韓國은 1977年에 第7肥料工場의 稼動에 힘입어 1980年 現在 化學肥料 生産量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143.4萬톤으로 1967年生産量 18.6萬톤의 7.8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同年 北韓의 物量基準 270萬톤, 成分含量基準 約 100萬톤의 約 2배에 달한다.

北韓 肥料의 成分含量이 低率인 이유는 韓國의 肥料生産은 尿素肥料를 중심으로 하는 最新시설인데 비하여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硫安과 같은 肥料 및 100萬톤에 달하는 磷肥料가 生産되고 있기 때문이다.

農藥, 合成樹脂등의 生産量은 더욱 隔差가 커서 1980年 韓國의 農藥生産量이 實量基準으로 20.8萬톤이나 되는데 比해, 北韓은 2.4萬톤의 生産에 그치고 있으며 그 種類도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主要 合成樹脂의 경우 北韓은 第1次7個年計劃期間중 6~7萬톤 生産을 目標로 하였고, 6個年經濟計劃期間중에는 이를 3倍로 提高시킬 計劃이라고 發表는 하였으나 實績發表가 전혀 없고 1980年 現在 10萬톤 정도의 生産能力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며 이는 同年 韓國의 90萬톤 生産能力에 비하면 역시 크게 뒤떨어지는 水準이다.

또한 韓國은 1980年에 시멘트生産能力 2,345萬톤을 기록한데 비하여 北韓은 950萬톤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石油産業은 그 隔差가 커서 韓國의 경우 1964年 建設된 油公을 비롯한 湖南精油, 京仁에너지등 精油工場의 建設로 原油處理能力이 日産 64萬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北韓은 年間 200萬톤 處理能力을 가진 소련援助의 승리화학공장(雄基精油工場)의 完工과 中共援助의 봉화화학공장(白馬精油工場)

의 250萬톤 處理能力을 모두 합해 겨우 日産 9萬배럴의 原油處理能力을 가진 實情에 있다.

이와 같이 精油能力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關聯石油化學工業은 더욱 큰 差를 보이고 있으니 前記한 合成樹脂生産 및 石油化學系統의 日用製品의 生産과 消費面에서 韓國의 급속한 發展에 비해 北韓은 아직도 未開拓狀態에 있는 것이다.

化學工業의 生産能力(1980年)

區 分	韓 國		北 韓	
	1974	1980	1974	1980
化學肥料成分屯(千 屯)	750	1,434	416	1,000
農 藥(千 屯)	54	208	14	24
主要合成樹脂(千 屯)	175	900	50	100
原油處理能力(千BPSD)	435	640	40	90

資料：韓國：經濟企劃院  
北韓：國土統一院

### (3)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이 軍需産業 중심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어 開發해 온 部門이다. 그러나 韓國은 1970年代에 重化學工業의 중점적 開發과 더불어 놀랄만큼 發展하였기 때문에 現在는 部門別로 優劣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1970年代 중반이후 韓國이 優位를 占하는 部門이 많아졌다.

全般的으로 볼때 自動車, 船舶등 輸送用機械는 韓國이 압도적으로 優位에 있으나 일부 動力機械는 北韓이 生産能力이 많다.

그러나 最近에 韓國의 機械工業의 生産能力과 技術水準은 急激히 增強 또는 向上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機械工業 全部門에 걸쳐서 北韓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韓國의 경우 自動車生産能力은 1974年 6.3萬台에서 1980年에 35萬台로 비약적으로 커졌으며, 造船能力도 1974年에 110萬톤에서 1980年에 280萬톤으로 매년 急速한 伸張을 거듭하고 있다. 北韓은 1970年경 約 1萬台的 自動車生産能力에서 現在 3萬台 정도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實生産台數는 1萬台 内外로서 승용차 및 대형수송차량과 특수화물운반차량은 蘇聯, 中共, 체코, 스웨덴, 日本등지에서 全量 輸入하고 있다. 또 造船能力의 경우 25萬톤 정도에 불과하며 最大船 建造 역시 貨物船 2萬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工作機械의 경우 生産能力은 年産 3萬台로 韓國의 2.8萬台보다 약간 優勢하며, 또한 農業機械化를 위하여 트랙타 生産에 주력하여 現在 3萬台 정도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機 械 生 産 能 力 ( 1980 年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比 較
各種 工作機械	千台	28	30	1 : 2
耕 耘 機	"	289	트랙타15馬力換算 30	-
自動車生産能力	"	350	30	11.7:1
造船能力	萬G/T	280	25	12.2:1
最大船建造	萬DWT	26	2	13 : 1

대체로 北韓은 工作機械와 一部の 動力機械에서 다소 앞서 있으며 韓國은 輸送用機械와 電氣電子機械 및 紡織機械部門에서 현저한 優位에 있다. 이러한 差異는 北韓의 경우 內向性經濟開發과 採算性を 무시한 軍需産業 爲主의 機械工業部門의 開發로 少數의 大型機械들도 自體生産에 주력하였으나, 韓國은 對外指向的 成長과 市場性에 의하여 國內市場需要에 맞추어 工業化를 하고 있는 點에 기인한다. 즉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의 開發을 위해 關聯産業인 動力 및 工作機械工業을 중점적으로 育成하였으나 韓國은 大型工作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이 있더라도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需要가 많지 않거나 經濟性에 따라 大量生産이 不可能한 것은 生産하지 않고 輸出産業 및

內需市場 爲主의 工業化에 따라 電氣·電子·輸送用機械, 紡織機械 生産에 치중한 때문이다.

## 라. 輕工業現況

### (1) 政策背景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直結된 輕工業部門의 建設은 극도로 抑制해 왔다. 그 結果 住民들의 消費生活은 전혀 무시되었으며, 봉쇄체제하에서 海外市場도 돌아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消費財 生産의 發展은 전혀 외면되었다.

이에 비하여 처음부터 韓國은 國民生活을 考慮하여 輸入代替産業으로서 輕工業部門을 開發하였고, 이로써 國內市場 뿐 아니라 海外市場의 商品對象이 되어 곧 輸出産業으로서 전체 經濟成長을 主導하게 하였던 韓國과 그 輕工業水準을 全般的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형편이다. 織物, 板유리, 電子製品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부 重工業까지도 世界的으로 부각되었고 年間 輸出額이 170 億弗線을 돌파하게 된 韓國과 輕工業을 전혀 외면하여 그 좁은 國內市場에서 조차 住民生活에 必要한 物資를 生産하지 못하고 있는 北韓의 輕工業은 比較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2) 主要 輕工業製品의 生産實績

몇가지 主要 輕工業의 지표를 比較해 보면 韓國은 織物生産能力의 경우 39 億로 北韓의 6 億m의 6.5 倍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電子製品의 경우 韓國은 輸出産業으로 큰 比重을 두어 1980 년에 TV受像機 生産能力 820 萬台로 世帶當 1 台씩 普及되어 있으며, 冷藏車 154 萬台를 生産하여 海外輸出과 國內市場에 販賣되었으나, 北韓에서는 라디오의 경우 겨우 國內需要에 相當할 정도이고, TV受像機는 10 萬台 정도 組立水準이며 특히 冷藏庫는 극소량을 소련, 日本 등지에서 幹部 및 선물용으로 輸入하고 있고 技術水準도 아직 小型冷凍庫의 組立段階程度에 있어 일반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도 北韓住民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物品 내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物品은 손목시계, 트랜지스터 라디오 및 아크릴 웨타가 꼽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消費水準은 韓國에 비해 近 20年은 後落되어 있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近來의 韓國은 所得水準의 向上과 輸出增加를 背景으로 耐久消費財 生産이 急激히 伸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輕工業部門은 製品의 種類와 品質이 매우 다양화되어 있고 消費者의 選好와 海外市場의 嗜好에 맞추어 廣範圍한 生産體制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製品의 種類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生産目標만이 强要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單位工場에서는 計劃量에 맞추기 위한 量的인 生産에만 치중하고 製品의 品質은 考慮를 하지 않고 있어, 消費者는 選擇의 여지가 없으므로 品質이 粗雜한 것은 必然的인 歸結이다. 이러한 現象은 소련의 第11次 5個年計劃의 報告書에서도 指摘되어 있듯이 共產圈國家의 一般的인 問題點이며 특히 北韓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이는 住民動員體制와 金日成 唯一體制를 堅持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住民의 窮乏生活을 强要하여 最小限의 基本的인 衣食住生活만을 營爲케 함과 同時에 勞動과 思想學習에만 注力케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

主要輕工業製品 生産實績 ( 1980 年 )

區 分	韓 國	北 韓
시멘트生産能力(萬톤)	2,345	950
織物生産能力(億M)	45	6
T V 受 像 機(千台)	8,200	100
라 디 오( " )	2,296	自給段階
冷 藏 庫( " )	1,540	小型組立段階

資料：韓國；經濟企劃院

北韓；國土統一院

## 마. 技術水準 및 展望

技術적으로 볼 때 韓國이 開放體制에 의한 先進技術 導入으로 急速한 技術革新을 이룩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閉鎖體制로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自體의 技術開發能力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性能과 技術이 落後되어 있다.

첫째, 産業用機械部門에 있어서 韓國은 콘크리트믹서, 부록크製造機등이 國際水準이며 石炭車등 數十個 種目は 自給水準에 있고, 高濃度크리머, 淨水器등은 輸出段階에 있다. 北韓은 工作機械分野는 量産體制가 갖추어져 있으나 板金部門은 소련등에서 그 技術을 導入하고 있다.

둘째, 農業用機械分野의 경우 韓國에서는 動力耕耘機등 各種 農機械가 대부분 國産化되고 있으며 動力機械는 96 ~ 97 %, 動力噴霧器는 86 %의 높은 國産化率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北韓에서는 트랙타등 連結農機械를 20餘種 生産하고 있는데 베어링등 一部 品目は 소련서 輸入하고 있다.

셋째, 輸送用機械分野는 대체로 韓國이 優位에 있으며, 自動車는 승용차, 小型트럭의 生産技術이 優秀하며 性能面에서도 단연 壓倒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大型車 生産이 상대적으로 優위에 있으나 技術水準은 全般的으로 저조하여 베어링, 點火機등은 소련, 日本, 체코 等地에서 購入하여 使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넷째, 電氣·電子機械도 韓國이 優位에 있으며, 電氣部門은 北韓도 發電用機械에 있어서는 다소 發達되었으나 電子工業部門은 壓倒적으로 韓國이 優位에 있다. 韓國의 경우 1973年부터 갈라TV를 生産하게 되었고 洗濯機와 冷藏庫는 北韓보다 7~8年 앞섰으며, 電子計算機도 앞서 있다.

앞으로의 發展에 있어서는 韓國은 第4次 計劃이후 重化學工業의 開發에 주력하고 있으며 輸出産業으로서의 輕工業開發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인 成長潛在力이 커서 第5次計劃(1982 ~ 1986年)以後에는 精密機械部門에 이르기까지 高度의 重工業化가 可能할 것이며 輸出市場에서의 國際競爭力을 確保해 나가기 위해 繼續的인 技術革新과 品質 및 性能의 國際化를 期해 나

갈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하였으나 産業間的 發展隔差로 인한 市場構造의 歪曲과 市場規模의 狹小와 採算上의 惡化로 成長面에서 失敗를 거듭하였으며, 앞으로 第2次 7個年計劃(1978 ~ 1984年)의 成敗與否에 따라 工業化의 展望이 크게 左右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技術이란 것이 대체로 解放以後 蘇聯을 위시한 共產圈諸國의 援助로 導入한 落後된 것에 지금도 의존하고 있으며,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蘇聯 및 中共등의 機械製品의 設計圖面을 원조형식으로 導入하여 模倣生産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自由化의 물결이 北韓住民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技術導入先도 多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專門技術者 및 留學生도 극히 少數만을 選發해 蘇聯 및 東歐共產圈國家에 派遣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現行 7個年計劃의 推進過程에서 隘路部分인 技術水準의 落後를 脫皮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制度的 改革이 要求되나, 政治的 이데올로기가 北韓體制의 原動力인 以上 이러한 措置는 期待가 當장은 不可能할 것이다.

## 5. 社会間接資本

### 가. 概 念

社會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SOC)은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에 直接 使用되는 資本이 아니라 間接적으로 生産活動을 支援하고 促進하는데 必要한 資本으로 直接生産資本(Directly Productive Capital-DPC)에 대응하는 概念이다. 그 內容은 港灣, 鐵道, 道路, 通信 및 發電設備등의 設備物으로써 一般的으로 公益事業이기 때문에 公共所有(Public Ownership)의 형태를 취하며, 설사 個人所有의 경우라도 政府의 規制를 받는 規制産業(Regulated Industry)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모든 産業이 公共所有이며 中央政府의 計劃에 의

하여 生産을 하므로, 그 所有形態에 있어서나 또는 規制産業으로써 一般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을 區分할 수 없다.

다만 北韓에서와 같이 生産的建設과 非生産的建設이라는 말로 直接生産部門과 間接資本部門의 區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語義가 뜻하는 대로 非生産的建設이 社會間接資本과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社會間接資本은 工業發展의 環境造成을 위한 必須的인 要素로서 그에 대한 投資가 重視되며, 특히 開發初期 韓國의 經濟成長은 社會間接資本이 先導的 役割을 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의 경우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는 投資規模가 老 大하고 資本의 懷妊期間이 長期인 反面 投資效果의 量的 測定이 困難하다는 特性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非生産的 投資로서 投資規模가 相對적으로 작다.

1970 年の 경우를 例로 들면 韓國은 社會間接資本에 全産業投資의 37.5%, GNP의 10.5%를 投資한데 비해, 北韓에서는 生産的投資의 優先으로 社會間接資本은 總投資의 27.7%, GNP의 8.3%에 그쳐 韓國보다 그 比重이 작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은 比重조차도 점차 작아지는 傾向에 있어 第2次 7 個年計劃期間中에는 總投資의 20% 미만을 社會間接資本에 投資하도록 計劃되어 있다.<sup>7)</sup>

####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比較

##### (1) 電力

電力施設은 韓國이 水資源등 與件의 不利로 海방전에는 92%가 北韓에 偏在되었던 것이나, 1980 年末 現在 發電施設容量에 있어 韓國은 939 만kw로써

---

7) 北韓의 社會間接資本은 그들의 非生産的 建設에 해당되나 우리의 概念과 맞추어 比較하겠다.

北韓의 469 만kw를 증가하고 있으며,發電量도 韓國이 373억kw h 로써 北韓의 216억kw h 를 증가하고 있다. 國民經濟發展에 있어 에너지產業은 典型的인 社會間接資本으로서 外部經濟的인 効果와 新規產業의 投資를 유발하는데 絶대적으로 必要한 것이다.

北韓의 경우 水資源이 豊富하여 水力中心으로 開發되었으나, 점차 火力發電 施設의 比重을 높여 現在는 水·火力의 比率이 6 : 4 정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火力發電의 燃料로서는 大部分 石炭을 使用하고 있어 全體 石炭生産量의 40%以上이 여기에 消費되고 있으며, 石炭供給에 있어서의 輸送問題는 火力發電所 建設의 큰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比하여 韓國은 水·火力發電施設比率이 19% 대 81%로 火力發電의 比重이 壓倒적으로 높으며, 火力發電燃料로서는 主로 石油가 利用되고 있다.

특히 1977年의 古里原子力發電所 稼動으로 電力供給에 있어서의 새로운 局面이 열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原子力, 潮力, 水力의 比重을 漸進적으로 높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全體的으로 볼 때, 生産費用面에서는 水力의 比率이 높고 火力發電의 燃料로 自家生産되는 石炭을 使用하고 있는 北韓이 다소 有利한 立場에 있으나, 産業生産增加에 따로 供給能力의 伸縮性은 技術과 資本能力이 높은 韓國이 壓倒적으로 優勢하다.

## (2) 運輸

鐵道는 종래 輸送手段의 核心이었으며 現代에는 高速道路, 海運, 航空 등의 發達로 輸送手段이 크게 분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鐵道の 役割이 重要하다. 韓國의 鐵道는 1980年 現在 總延長 6,007 km이며, 이 중 電鐵은 923 km이다.

北韓의 경우 立地條件上 東西間의 海岸連結輸送이 不可能하므로 鐵道依存이 絶대적이며, 따라서 東西連結鐵道の 建設에 苦心하고 있다. 北韓은 1980年 現在 鐵道 總延長이 4,590 km이며, 電鐵은 全體의 54%인 2,500 km로 韓國

의 2.7 배로서 電鐵의 比重이 크다. 北韓은 1970 年代에 進行된 6 個年計劃의 遂行過程에서 輸送問題가 現實적으로 심각하게 抬頭되었으며, 특히 東西의 工業地域을 連結하는 鐵道建設과 電鐵化에 크게 注力하였다.

韓國의 경우 道路輸送은 갈수록 그 比重이 커져 1980 年 現在 自動車輸送比重은 人員面에서 鐵道の 18 倍, 貨物은 3 倍로써 모든 施送手段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韓國의 道路總延長은 46,951 km이며, 高速道路가 1,225 km로 2.6 %를 차지하고 鋪裝道路의 比率은 31 %이다. 國土 1 km당 道路保有率은 0.47 km로써 다른 先進國들 보다는 낮으나 高速道路의 建設로 全國의 1 日生活圈을 이룩하였다.

이에 比하여 北韓의 公路輸送은 鐵道와 海運樹送의 補助手段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低地帶인 西海岸과 平壤一帶의 道路만이 整備되어 있다.

그의 道路로서 南北縱橫線이 山岳地帶를 길게 꿰뚫고 있으며 1978 年에 平壤-元山間 高速道路가 開通되었다고 發表되었다.

北韓의 道路總延長은 20,800 km이며 高速道路는 이의 1.7 %인 230 km에 불과하고, 鋪裝率 역시 3 %의 낮은 水準에 있어 道路裝備가 극히 粗惡한 形便이다. 특히 現在 1 km당 0.17 km에 불과한 道路密度는 北韓의 自動車輸送比重이 적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海運에 있어서는 韓國은 經濟發展에 따라 그 比重이 날로 增加되어 1980 年 現在 港灣施設은 荷役能力 82,261 千噸, 船舶生産能力은 2,800 千 G/T 에 이르고 있다.

社 會 間 接 資 本 施 設 ( 1980 年 )

區 分	韓 國	北 韓
發電施設容量 ( 千 kw )	939	469
發 電 量 ( 億 kwh )	373	216
鐵道總延長 ( km )	6,007	4,590
電 鐵 ( km )	923	2,500
道路總延長 ( km )	46,951	20,800
高 速 道 路 ( km )	1,225	230
荷 役 能 力 ( 千 噸 )	82,261	25,000

資料：韓國；經濟企劃院  
北韓；國土統一院



이에 비하여北韓은 東西海岸의 連結이 不可能하여 海運은 鐵道の 補助手段으로 利用되어 왔을 뿐이며, 年間荷役能力은 25,000 千톤 水準에 있다.

韓國에서 輸送手段間의 分擔率을 보면 貨物輸送의 경우 鐵도가 16%, 道路가 47%, 海運이 37%로 되어 있다. 그러나北韓의 輸送은 鐵道依存도가 87%以上이며, 道路나 海運輸送은 鐵道輸送의 補助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

北韓은 東西海岸地帶를 따라 産業立地가 이루어져 沿岸輸送이 重要함에도 道路 및 海運輸送이 東西沿岸을 連結시켜 주지 못함으로 鐵道輸送에 過度하게 依存하게 된 것이다. 鐵道나 道路建設에서 山岳과 河川을 극복해야 하는 地形上的 困難과 그 建設期間의 長期性은 投資效率을 극도로 낮게하고 있다.

航空에 있어서 韓國은 1980年 現在 旅客輸送 500餘萬名, 貨物輸送 20餘萬噸으로 1962年 보다 각각 4倍 및 8倍의 增加를 記錄했다. 이에 비해北韓은 1959年 平壤 - 모스크바, 平壤 - 北京間의 定期航路를 開設하였으며, 國內航路는 1960年 閉鎖하였다가 1970年에 復活되었는데 軍의 直接 統制下에 있어 規模面에서 지극히 영세하다.

### (3) 通 信

韓國의 通信施設은 크게 發展되어 1980年 現在 電話普及率이 100人當 7.1臺, 自動化率 97%, 市外 및 長距離電話의 自動化가 이루어졌고, 1977년에는 第2衛星通信地球局이 完成되어 美國, 日本은 물론이며, 非敵性共產國과의 通信網도 擴大되었다. 韓國의 경우 通信部門을 카바하는 電信電話機器의 製造業이 크게 發展하여 國內需要는 물론이며 높은 海外輸出實績을 올림으로써 通信事業의 發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北韓의 경우는 電信電話機能이 動亂後의 破壞를 復舊하는 水準에서 멈추고 있으며, 1980年 現在 市內共用電話가 30萬臺로서 個人電話는 特殊高位層을 除外하고는 전혀 없다. 國際通信의 경우도 蘇聯과 中共을 仲介로 하고 있으며 아직 國際電話電信聯盟에도 加入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郵政事業도 韓國은 郵遞局이 2,003局이며, 1人當利用數가 24通인데北韓

은 1,394局으로 推定되며 1人當 19通의 利用度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경우 電信電話에 비해 郵政事業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높아서 個人交信은 거의 郵便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 6. 貿易 및 國際收支

### 가. 貿易規模

우리는 이미 南北韓經濟體制 및 政策運營의 基本路線에 관한 比較에서 北韓의 아우타르키(Autarky)體制가 資本과 資源이 다같이 不足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南北韓은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하므로 貿易依存의 擴大가 不可避하며 더우기 開發初期에는 投資財源도 不足하므로 先進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閉鎖的인 아우타르키體制를 擇하였기 때문에 對外貿易이 小極的일 수 밖에 없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貿易部 산하의 國營商社와 그밖에 協同貿易商社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貿易政策의 方向도 國民經濟가 對外指向的이 아니기 때문에 貿易이 對內經濟에 從屬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輸出計劃을 設定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이 처음부터 開放體制를 指向하여 貿易 및 資本導入을 擴大하고, 이에 適應할 수 있는 產業化政策을 취하여 輸出主導型的 成長과 國際競爭力속의 工業化를 實施해 왔던 것과 根本적으로 다르다.

南北韓의 貿易規模는 韓國은 1980년에 國際收支基準으로 輸出 172億弗, 輸入 220億弗로 貿易總額이 392億弗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同年 輸出 14.4億弗, 輸入 17.4億弗로 貿易總額이 31.8億弗에 불과하다. 이는 同年 韓國의 貿易規模에 비하면. 輸出은 8.4%, 輸入은 7.9%, 貿易總額은 8.1%에 불과하다. 더우기 韓國은 貿易伸張이 매우 急速하여 1962~1980년의 19年

동안 輸出伸張率은 年平均 40%, 輸入伸張率은 31%나 되는 急速한 伸張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輸出入規模가 크게 伸張될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貿易規模의 隔差는 繼續해서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韓國은 現在까지 輸出入의 不均衡이 繼續되고 있기는 하나 長期間에 걸쳐 輸出伸張率이 輸入伸張率보다 越等하게 컸기 때문에 그 隔差는 점차 減少되고 있으며, 不遠間에 貿易收支의 安定的인 均衡 및 黑字轉換이 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1960年代까지는 아우타르키의 原則에 따라 比較的 輸出入規模의 隔差가 적었고 거의 均衡을 維持했었으나, 1970年代에 들어와 外債에 依存하기 始作하면서 貿易收支赤字가 커지는 段階에 있다.

貿易規模

(單位: 百萬弗)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輸 出	輸 入	總 額	輸 出	輸 入	總 額
1970	835.2	1,984.0	2,891.2	366.0	439.0	805.0
1971	1,067.6	2,394.3	3,461.9	301.9	564.1	866.0
1972	1,624.1	2,522.0	4,146.1	399.0	639.7	1,038.7
1973	3,225.0	4,240.3	7,465.3	497.7	842.7	1,340.4
1974	4,460.4	6,851.8	11,312.2	677.2	1,303.1	1,980.3
1975	5,081.0	7,274.4	12,355.4	814.0	1,092.7	1,906.6
1976	7,715.3	8,773.6	16,488.9	658.1	828.8	1,486.9
1977	10,046.5	10,810.5	20,857.0	680.0	820.0	1,500.0
1978	12,710.6	14,791.9	27,682.5	870.0	930.0	1,800.0
1979	15,055.5	20,338.6	35,394.1	1,260.3	1,324.0	2,584.3
1980	17,200.0	22,000.0	39,200.0	1,440.7	1,738.5	3,179.2

資料: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國土統一院

나. 商品別 및 地域別 貿易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는 南北韓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韓國은 開發以前인 1961년까지만 해도 工產品輸出이 18.2%에 불과하고 1次產品이 81.8%를 차지했으나, 1963년부터 工產品이 51.7%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에는 90.9%로 증가된 반면, 1次產品은 9.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韓國의 産業構造가 開放체제에 적응하여 高度化되었고 輸出産業이 經濟成長을 主導한 까닭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현재 1次產品의 輸出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工產品은 59%에 불과하다.

商品의 輸出入構造를 비교할때, 韓國은 工產品(製品)輸出에 原資材 輸入依存의 態로서, 産業技術의 高度化를 반영하고 國際競爭力이 높은 것을 알수 있으나,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製品을 輸入하는 落後된 貿易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은 經濟沈滯를 탈피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を 시도하고 있으나 對內的인 投資條件의 未備로 外資의 受容能力(Absorptive-Capacity)이 없는데다가 國際競爭力이 있는 輸出産業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償還能力(Debt Service Capacity)이 없어서 元利金償還을 이행하지 못하여 困境에 빠지고있는 形편이다.

南北韓 輸出商品 構造(1980년)

(단위: %)

區 分	韓 國	北 韓
一 次 產 品	9.1	41
工 產 品	90.9	59

자료: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國土統一院

※ 北韓의 輸出商品構造는 1980年度 對蘇·日 輸出實績에서 評價한 것임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1963년까지만 해도 共產圈과의 貿易比重이 總 貿易量의 90%以上을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70년대에 들어와 對西方 貿易增加率이 대폭 높아져 1974년에는 53.6%로 對 共產圈 貿易比重을 한때 능가했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다시 對共產圈과의 貿易比重이 높아져, 아직도 소련 및 中共등 共產圈과의 貿易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自由圈과의 貿易增大는 주로 對日貿易의 增大에 基因한 것인데 특히 1972年1月 「日朝貿易擴大合意書」의 調印이후 크게 伸張되었으며, 機械 및 化學工業製品을 대폭 輸入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4년의 對日輸入은 前年對比 2.5배로 급증되었으나 輸出은 26.0%의 增加率에 그쳐 對日貿易赤字가 크게 擴大되었다. 이와같은 貿易赤字의 擴大는 對外經濟協力依存의 擴大를 의미하나 최근 外資의 不足으로 對西方國家에 대한 支拂延滯事態가 속출하게 됨으로써 貿易擴大가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이는 75年이후 貿易規模가 점차 감축된 것으로 立證된다.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 100 만불)

年 度	貿易總額	共 產 圈		自 由 圈	
		金 額	構 成 比 (%)	金 額	構 成 比 (%)
1971	866	734	84.8	132	15.2
1972	1,039	796	76.6	243	23.4
1973	1,340	820	61.2	521	38.8
1974	1,980	918	46.4	1,062	53.6
1975	1,907	1,032	54.1	875	45.9
1976	1,487	984	66.2	503	33.8

자료 : 國土統一院

## 7. 國民生活水準

오늘날 自由主義國家에서는 福祉社會를 목표로 하여, 인플레이션 없는 持續的 成長으로 失業率을 極小化하고, 租稅政策과 社會開發政策으로 階層間的 富의 平等을 추구하며, 부단한 技術革新으로 勞動生産性を 높이고, 生産性質金體制를 만들어 대폭적인 賃金引上을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들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的 低下와 輕工業部門의 沈滯로 지난 1950년대 이후 自由主義國家들보다 國民生活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北韓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특히 農產物價格의 低評價와 國營工產物價格의 高評價로 住民에 對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들면 農產物供出價格을 時價의 25%로 集團農場에서 收買하므로 75%는 실질적인 租稅로 징수하는 셈이며 工業製品價格을 高價로 販賣하는 것은 그만큼 間接稅를 부과한 것과 같다. 현재 소련의 경우에도 일부 消費財 工產品價格은 國際時勢의 10倍以上이나 비싼것이 허다하다.

南北韓의 異質的 經濟체제하에서 國民의 生活水準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價格構造, 消費樣相등의 비교는 北韓의 統計資料의 실빙성등 制約要因이 많다. 따라서 國民總生産物인 財貨의 分配, 再生産을 위한 投資費의 負擔과 軍事費의 支出額등을 고려하여 1人當 消費水準의 대강을 比較해볼 수 밖에 없다.

北韓에 있어서는 GNP에 대한 國家豫算, 즉 公經濟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私經濟는 나머지 20~30%에 불과하며, 이는 소련 및 東歐 諸國의 豫算規模가 GNP의 60~70%인것 보다 公經濟의 比重이 높다. 公經濟는 財政 및 投資部門이며 私經濟는 消費部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韓國은 1980년도의 GNP에 대한 財政의 比率이 18.5%이고 投資率이 31%이므로 民間消費는 69%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나 실제로 國民總生産에 대한 支出에 있어서 民間消費의 比率은 78.4%이다. 이는 投資의 일부 재원이 海外貯蓄에 의존하고 있으며 一般財政部門중 投融資의 比率이 있기 때

문이다. 아 물론 GNP에 있어서 民間經濟活動 특히 民間消費의 比率에 있어 韓國은 北韓보다 월등히 높으며, 投資率도 대부분 民間貯蓄이 담당하고 있으나 北韓은 源泉的으로 民間經濟의 비중이 적다.

또한 生産의 側面에서도 北韓은 工業總生産 가운데 消費財는 14% 정도 밖에 生産되지 않는다.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소련의 스탈린식의 重工業優先主義를 표방하여 産業間的 不均衡을 초래하였고, 消費財供給의 不足과 工產品價格의 격심한 高價構造로 個人消費를 어렵게 만들었다.

1980년 韓國의 1人當 貯蓄額은 385弗로 1人當 GNP 1,506弗의 25.6%이었으나 北韓은 1人當 投資額이 247弗로 1人當 GNP 758弗의 31.5%를 차지하고 있어 投資率이 韓國의 貯蓄率보다 월등히 높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은 韓國이 6.4%인데 비해 北韓은 24.4%이며 1人當 軍事費支出額은 韓國이 97弗인데 비해 北韓은 185弗이다.

1人當 GNP에서 1人當貯蓄額과 軍事費를 차감한 것을 1人當消費額으로 본다면 韓國은 1,024弗이나, 北韓은 326弗에 불과하다.

엄격히 따지면 政府消費를 제외해야 하겠으나 民間消費와 政府消費를 합한 總消費를 人口로 나눈 것이 1人當消費라고 볼수도 있으므로 그대로 比較하였다.

이와같이 南北韓의 實質的인 消費水準은 韓國의 1,024弗 對 北韓의 326弗로써 3對1 이상의 比率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消費水準의 차이는 南北韓의 投資財源負擔과 軍事費負擔의 차이에 기인되며, 北韓은 投資의 대부분이 軍需産業에 投入되기 때문에 高投資率에 비해 成長率이 상대적으로 低率인 것이므로 經常軍事費와 軍需産業의 過重한 負擔으로 消費水準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經常軍事費와 軍需産業中心의 非效率的 投資를 경감시키지 않는 限 北韓住民의 生活向上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北韓은 金日成 唯一體制를 固守하면서 經濟沈滯에도 불구하고 이를 戰時經濟體制로 運營함으로써 住民들에게 무리한 經濟負擔을 強行해 나가고 있다.

예를들면 生産工場에도 軍隊式編制를 도입하여 從業員이 300名以上이면 大隊, 1,000名以上이면 聯隊로 편성하여 軍隊式 命令生産과 各種의 社會主義的 競争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命令生産은 投資의 效率을 무시하기 때문에 勞動生産性을 低下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共產主義國家의 最大의 弱點이 勞動生産性의 低位에 있음은 이미 레닌誕生 100周年記念 蘇聯邦最高會議에서 브레즈네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소련을 비롯한 共產圈에서는 經濟沈滯의 根本原因인 低生産性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이 不可避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政策轉換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은 勞動生産性의 低位를 軍隊式 勞動強化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住民들의 勞動力착취를 강화함으로써 實質的인 所得과 生活水準의 低下를 强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住民生活은 生産面에서의 工產品消費財의 부족으로 消費物資에 한계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分配面에서도 年 35 ~ 40 %의 投資率을 감당하기 위한 強制貯蓄과 GNP의 20 %를 상회하는 軍事費 負擔으로 인해 國民의 消費水準은 극히 저급할 수 밖에 없다.

北韓은 1960年代의 第1次 7個年計劃期間중 中·蘇紛爭과 共產圈內的 분열로 對外經濟協力을 얻을수 없었으며 對內的으로는 軍需産業中心의 개발이 一般産業開發을 저해함으로써 전체의 經濟成長을 둔화시켰다.

이러한 成長둔화는 1970年代에 더욱 심각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對自由圈 經濟協力을 모색하였으나, 「國防·經濟併進策」에 입각한 軍需産業育成과 閉鎖體制하의 重工業優先政策을 繼續 固守함으로써 國際競爭과 對外適應力을 提高시킬수 없는 狀況때문에 오늘날 對外支給能力의 상실로 國際的信用을 完全히 잃게된 것이다.

## 2. 構造的 強弱点

### 가. 韓 國

解放以後 戰後復舊에 허덕이던 1960년까지의 過渡期 經濟에서 經濟開發 計劃을 세우고 韓國經濟가 跳躍을 始作한 60年代 및 70年代의 韓國經濟의 基本戰略은 한마디로 成長爲主의 對外指向의 戰略이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膨脹하는 人口와 國家安保에 필요한 資源調達과 같은 根本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成長만이 우리가 擇할 수 있는 길이었다. 또한 61年以來 우리는 그 以前의 輸入代替戰略을 버리고 積極的인 輸出振興政策을 통한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을 취하여 왔다. 이는 輸入代替期間동안 대부분의 非耐久消費財의 輸入代替가 어느정도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不足하며 國內市場이 狹小하고 資本과 技術蓄積이 貧困한 立場에서의 當然한 戰略이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成長爲主, 對外指向的인 政策을 政府主導下에서 強力하게 推進함으로써 民間企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産業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高速道路의 建設, 各種 工業基地의 建設, 發電施設의 擴充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을 획기적으로 擴充하였다.

그리고 産業構造面에서도 開發初期에는 輕工業中心으로 發展되어 오다가 73年以後에는 製鐵, 造船業등 重化學工業에도 集中投資를 實施하기 시작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基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外向性成長의 開發戰略에 따라 産業構造를 輸出産業優先으로 開發함으로써 일찍부터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킨결과 輸出額이 1980年 現在 172億弗의 實績을 달성케 된 것이다. 이는 政策開發과 運用의 妙를 合理的, 實際的으로 구사해나간 결과이지만 그 基底는 韓國民의 강열한 開發意志와 參與力量의 具顯에 있었다 하겠다.

반면에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의 계속이라는 弱點을 갖고있다. 그동안 대폭적인 수출신장으로 1977년에는 만성적인 赤字를 지양할 수 있을 정도로 國際收支가 호전되었으나 第2次「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傾向의 대두등으로 다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韓國은 수출상품의 다양화, 고급화 및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현재의 世界的인 不景氣 및 수입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外資의 依存도 점차 止揚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高度成長에 따른 物價의 昂등과 富의 遍在현상도 80年代의 安定基調 確保와 각종의 社會開發 및 福祉政策의 施行과 團合된 國民經濟意志로 이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우, 60年代부터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등으로 단계적인 工業化에 성공하고 있는 點을 長點으로 들수 있다.

무엇보다 國內外市場需要와 生産企業의 利潤原理가 作用됨으로써 創意와 意

또한 水資源의 效率的開發을 위하여 충주댐, 합천댐, 낙동강하구언을 計劃期間중에 완공하고 住岩댐을 着工할 것이며 홍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河川 810km를 改修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結集으로 80年代 第2의 跳躍을 達成하고 第5共和國의 基本理念인 民主, 正義, 福祉를 구현할 것으로 展望된다.

#### 나. 北韓經濟의 構造的問題點과 體制變化

北韓은 1960年代의 第1次7個年計劃의 失敗에 이어 70年代의 6個年計劃도 失敗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根本的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첫째, 國民總生産의 20%以上을 넘는 軍事費負擔이 開發財源을 잠식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는 先進工業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을 어렵게 하여 開發財源의 調達과 특히 技術革新의 차질을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對外資本協力を 시도하고 있으나 國際金融市場의 여건이 60年代보다 크게 不利해졌으며 産業構造의 國際適應力이 없기 때문에 元利金償還에 큰 困難을 일으키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 自然資源의 制約과 國內市場의 狹小등을 無視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계속 추진한 결과 産業間의 不均衡을 심화시켜 成長速度를 鈍化시켰다. 결국 北韓은 제한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여 資本의 浪費가 많았고 막대한 軍事費負擔과 閉鎖的인 自給經濟體制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經濟開發에 失敗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北韓은 經濟成長의 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그들의 體制를 轉換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있는데 그 까닭은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과 技術의 落後性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開放體制로 轉換하려면 産業構造와 開發戰略에 있어서 國際市場의 適應力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執權層이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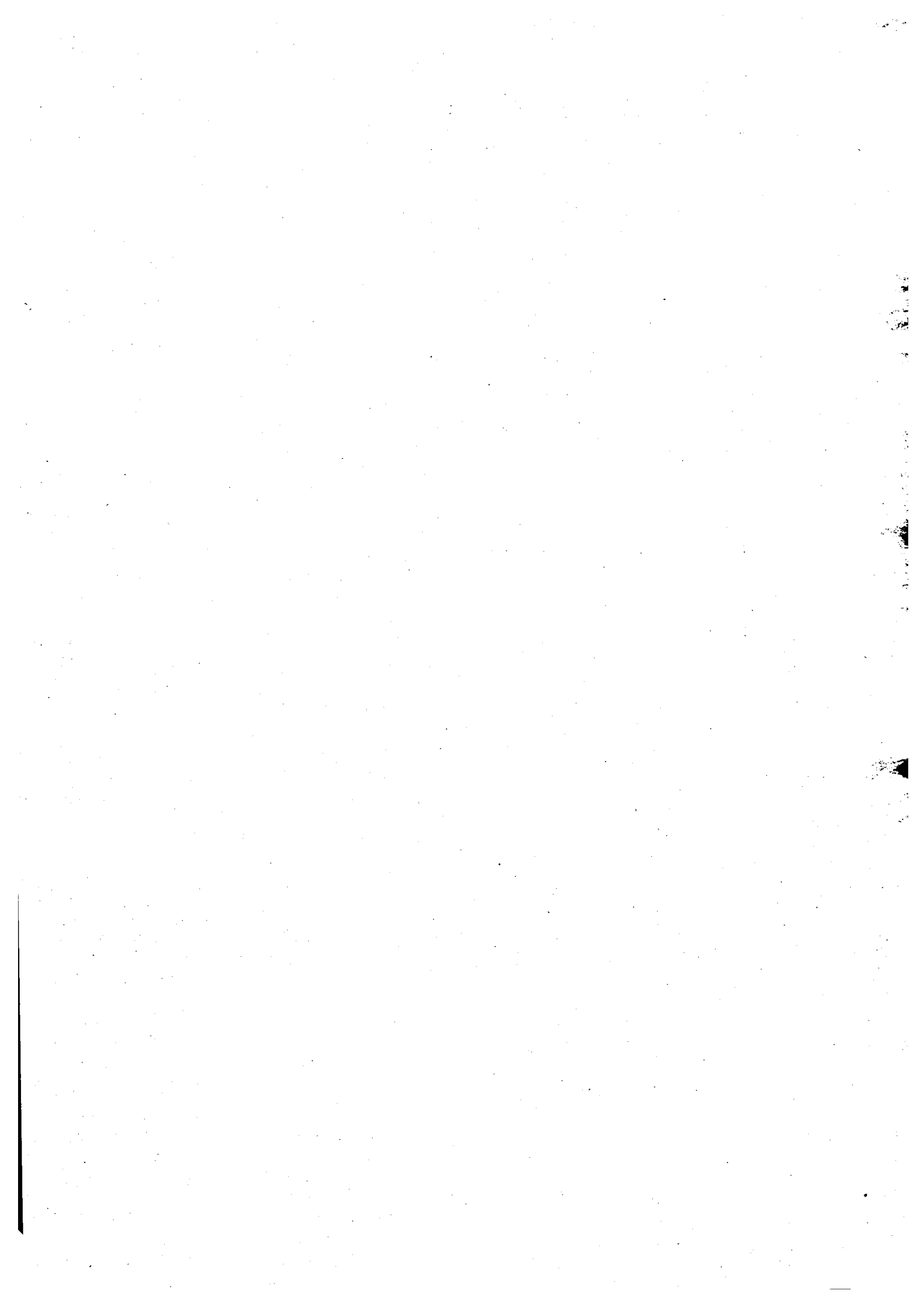
이다.

더우기 東歐諸國의 改革이 항상 蘇聯의 反應을 의식하면서 행하여졌으나 결국 그것은 蘇聯自體의 根本적인 改革없이는 어려운 作業임을 알게된 바와 같다.

根本적으로 北韓體制의 원동력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自體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路線이 變化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既存權力集團의 死亡 및 權力暗鬪등으로 인한 權力體系의 再編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勢力的 浮上과 自己完結的 自體矛盾의 修正을 위한 政策變化가 있을 때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강하게 作用하여, 南北對峙의 狀況的 認識의 범위내에서 調整期, 緩衝期라는 名目下에 部分的인 合理化, 實用化의 改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統一力量과 經濟發展力量 및 社會正義를 具顯하기 위한 統合力量을 계속 培養해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生産工場에도 軍隊式編制를 도입하여 從業員이 300名以上이면 大隊, 1,000名以上이면 聯隊로 편성하여 軍隊式 命令生産과 各種의 社會主義的 競爭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命令生産은 投資의 效率을 무시하기 때문에 勞動生産性을 低下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共產主義國家의 最大의 弱點이 勞動生産性의 低位에 있음은 이미 레닌誕生 100周年記念 蘇聯邦最高會議에서 브레즈네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소련을 비롯한 共產圈에서는 經濟沈滯의 根本原因인 低生産性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이 不可避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政策轉換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은 勞動生産性의 低位를 軍隊式 勞動強化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住民들의 勞動力착취를 강화함으로써 實質的인 所得과 生活水準의 低下를 強要하고 있는 실정이다.

## IV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 1. 經濟開發成果

#### 가. 韓 國

60~70年代의 韓國의 經濟開發戰略은 우리에게 經濟開發에 對한 意志를 鼓吹시키고 自信心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短期間內에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는 點에서 볼때 그 時代的 背景下에서는 妥當性이 있는 戰略이었다.

여하튼 지나간 20餘年間的 經濟開發의 結果로 우리經濟는 50年代의 社會經濟的인 惡循環을 打破하고 世界的으로 注目받는 新興工業國으로 國際經濟的 地位가 向上되었다.

1962年부터 經濟開發에 着手한 韓國은 1975年 價格基準으로 第1次 計劃期間에 年平均 7.8%, 第2次 計劃期間에 9.7%, 第3次 計劃期間에 10.1%로 經濟成長을 加速化하면서 全期間에 걸쳐 9.3%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였음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서 經濟成長의 結果를 綜合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次産業의 成長과 특히 第2次 計劃이후의 重化學工業의 開發로 産業構造가 크게 改善되었으며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改善은 획기적인 輸出增大의 기반이 되었다.

둘째, 開放體制下에서의 對外指向的 成長을 追求하여 國際經濟協力の 增大와 貿易依存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1964년부터 韓·日國交正常화와 外資導入의 積極推進으로 投資財源을 조달하였고 貿易自由化의 擴大로 世界經濟의 潮流에 順응하면서 輸出貿易의 광목할만한 확대를 성취하였다.

셋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구축하였다. 韓國經濟는 6.25 動亂이후 外國援助에 의존하였으나 1960年代의 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外援을 지양하게 되었고 開發初期에는 外資導入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外資의 의존율도 감소되어 自立的 成長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開發戰略은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向上시켜 開放體制에 의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過程에 성공하므로써 自然資源의 不足과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投資財源의 부족을 극복하고 高度成長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公업화과정에서 輕工業에서 重工業 나아가서 重化學工業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추구하여 현재 重化學工業의 構成比를 높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 나. 北 韓

北韓은 1950年代와 60年代의 開發初期부터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여 「全面的인 技術革新」을 내걸고 1961년부터 第1次7個年計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閉鎖體制下에서 국제적인 先進技術의 도입을 외면함으로써 自體技術의 向上에 限界性을 露呈하였으며 더우기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狀況下에서 強制貯蓄手段에 의존한 開發計劃은 資本動員은 물론, 그밖의 계획수행에 차질을 빚어, 第1次7個年計劃의 기간을 3年 연장하였으나 石炭과 電力部門은 당초계획의 70%에 미달하였다. 1970年代에 추진한 6個年計劃도 역시 失敗하여 76年과 77年을 「未完成高地 점령의 해」 「완충의 해」등으로 표현하면서 計劃의 차질을 調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現在 추진중에 있는 第2次7個年計劃도 中間實績發表가 전혀 없어서 그 基本的내용은 알 수 없으나 各種 演說文에 나타나는 強調點을 검토하여 불매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北韓은 개발초기부터 輕工業은 開發하지 않고 重工業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國民生活에 必要한 生産品의 부족으로 工產品消費財의 高價政策을 취하였으며, 輕工業기반이 없는 중공업개발로 인해 產業間의 不均衡과 資本의 浪費가 격심하여 개발속도를 둔화시켰다. 따라서 強制貯蓄에 의한 投資率이 年 35~40%의 高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成長率이 저조하였던 것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의 支配層이 住民들의 불만을 해소할 目的으로 輕工業發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을 變更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輕工業의 生産實績이 저



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住民生活은 生産面에서의 工產品消費財의 부족으로 消費物資에 한계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分配面에서도 年 35 ~ 40 %의 投資率을 감당하기 위한 強制貯蓄과 GNP의 20 %를 상회하는 軍事費 負擔으로 인해 國民의 消費水準은 극히 저급할 수 밖에 없다.

北韓은 1960年代의 第1次 7個年計劃期間중 中·蘇紛爭과 共產圈內的 분열로 對外經濟協力을 얻을수 없었으며 對內的으로는 軍需産業中心의 개발이 一般産業開發을 저해함으로써 전체의 經濟成長을 둔화시켰다.

이러한 成長둔화는 1970年代에 더욱 심각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對自由圈 經濟協力을 모색하였으나, 「國防·經濟併進策」에 입각한 軍需産業育成과 閉鎖體制하의 重工業優先政策을 繼續 固守함으로써 國際競爭과 對外適應力을 提高시킬수 없는 狀況때문에 오늘날 對外支給能力의 상실로 國際的信用을 完全히 잃게된 것이다.

## 2. 構造的 強弱点

### 가. 韓 國

解放以後 戰後復舊에 허덕이던 1960년까지의 過渡期 經濟에서 經濟開發 計劃을 세우고 韓國經濟가 跳躍을 始作한 60年代 및 70年代의 韓國經濟의 基本戰略은 한마디로 成長爲主의 對外指向的 戰略이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膨脹하는 人口와 國家安保에 필요한 資源調達과 같은 根本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成長만이 우리가 擇할 수 있는 길이였다. 또한 61年以來 우리는 그 以前의 輸入代替戰略을 버리고 積極的인 輸出振興政策을 통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취하여 왔다. 이는 輸入代替期間동안 대부분의 非耐久消費財의 輸入代替가 어느정도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不足하며 國內市場이 狹小하고 資本과 技術蓄積이 貧困한 立場에서의 當然한 戰略이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成長爲主, 對外指向的인 政策을 政府主導下에서 強力하게 推進함으로써 民間企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産業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高速道路의 建設, 各種 工業基地의 建設, 發電施設의 擴充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을 획기적으로 擴充하였다.

그리고 産業構造面에서도 開發初期에는 輕工業中心으로 發展되어 오다가 73年以後에는 製鐵, 造船業등 重化學工業에도 集中投資를 實施하기 시작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基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外向性成長의 開發戰略에 따라 産業構造를 輸出産業優先으로 開發함으로써 일찍부터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킨결과 輸出額이 1980年 現在 172億弗의 實績을 달성케 된 것이다. 이는 政策開發과 運用의 妙를 合理的, 實際적으로 구사해나간 결과이지만 그 基底는 韓國民의 강열한 開發意志와 參與力量의 具顯에 있었다 하겠다.

반면에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의 계속이라는 弱點을 갖고있다. 그동안 대폭적인 수출신장으로 1977년에는 만성적인 赤字를 지양할 수 있을 정도로 國際收支가 호전되었으나 第2次「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傾向의 대두등으로 다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韓國은 수출상품의 다양화, 고급화 및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현재의 世界的인 不景氣 및 수입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外資의 依存도 점차 止揚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高度成長에 따른 物價의 昂등과 富의 遍在현상도 80年代의 安定基調 確保와 각종의 社會開發 및 福祉政策의 施行과 團合된 國民經濟意志로 이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우, 60年代부터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등으로 단계적인 工業化에 성공하고 있는 點을 長點으로 들수 있다.

무엇보다 國內外市場需要와 生産企業의 利潤原理가 作用됨으로써 創意와 意

慾이 넘치며 技術革新에 있어서도 國際競爭下에서 國際水準을 증가하게 된 것이 커다란 強點인 것이다.

이는 外國政府 및 企業의 國內投資額과 件數, 그리고 資本供與에 있어서의 條件 및 利率率등을 보아도 海外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健全함과 信憑性을 實證한다 하겠다.

#### 나. 北 韓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地下資源이 상대적으로 豊富한 점에서 工業資源面에서의 強點을 갖고있다. 그러나 北韓도 궁극적으로 汎世界的 次元에서는 資源이 不足한 狀態이며 따라서 對外貿易을 必要로 하고 있으나 閉鎖體制下에서 對外協力과 貿易을 무시하였음은 開發面에서의 커다란 脆弱點이 되고 있다.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으로 機械工業의 一部 部門에서 현재 韓國보다 優位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軍需工業이 系列化되어 비교적 발달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殊産業部門의 偏重的 發展은 一般産業의 發展과 연관성을 맺을 수 없다는 點에서 制約要因으로도 作用되는 것이다.

北韓은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輕工業部門이 크게 落後되어 있으며 특히 開發財源의 貧弱과 對外技術協력이 閉鎖體制 固守로 困難한 立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經濟體制의 改編과 開發戰略의 전환없이 그들의 經濟發展 展望은 매우 흐린 것이라고 하겠다.

### 3. 展 望

#### 가. 韓國의 經濟, 社會發展

韓國은 1970年代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의 급속한 成長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機械工業, 金屬工業, 化學工業, 造船工業, 電氣, 電子工業 등의 重要産業이 成長主導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개발着手는 北韓에 비하여 늦기는 하였으나 成長潛在力이 현저히 컸기 때문에 現在 대부분이 生産能力의 優位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韓國은 더 낡은 投資與件의 造成과 産業間의 聯關效果를 提高시키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를 더욱 늘릴 것이며 특히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生活環境과 關聯된 社會開發 및 發展에 대한 投資도 크게 增大시킬 것이다. 또한 地域間의 均等한 發展과 國土空間의 効率的인 活用을 위한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投資가 대폭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高等教育機會의 증대 失業, 醫療保險을 비롯한 諸保險등 社會福祉政策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 確實하다.

80年代 韓國經濟의 모습은 5次計劃이 마무리되는 86年の 國民總生産은 1980年 價格基準으로 900億弗에 이르고 1人當 國民總生産은 2.170弗로 늘어남과 同時에 就業人口도 1,630萬名으로 늘어나 失業率은 80년에 5.2%에서 86년에는 4%로 改善될 것이다.

한편 國民生活도 向上되어 住宅普及率은 86년에 78.4%로, 上水道普及率은 70%로 높아지고 醫療保險受惠率은 65.9%로 擴大되는 한편 醫師 1人當 人口數는 80年の 1,485名에서 86년에는 1,275名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大學門戶의 개방에 따라 大學就學率도 높아져 80年の 15.8%에서 86년에는 2배가 늘어난 31.2%로 확대되고 100人當 電話普及率도 7.1대에서 3배가까이 늘어난 19.3대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5次計劃期間中에 서울-大田間을 한時間帶로 잇는 超高速電鐵을 착공하고 호남선 구간중 裡里-松汀里間 101km를 복선화할 것이다.

한편 大邱-光州間 東西高速道路를 建設하여 嶺南과 湖南간의 교류를 擴大할 것이며 國道 2,239km를 鋪裝하여 86년까지 鋪裝率을 72.1%까지 높일 것이다.

對外貿易의 增加에 對處할 수 있도록 釜山, 仁川등 주요 항만시설을 擴充하여 港灣荷役能力을 1億3,100萬噸으로 增加시키고 金浦, 金海, 濟州空港을 擴張하여 國內外旅客의 輸送能力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水資源의 效率的開發을 위하여 충주댐, 합천댐, 낙동강하구언을 計劃期間중에 완공하고 住岩댐을 着工할 것이며 홍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河川 810km를 改修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結集으로 80年代 第2의 跳躍을 達成하고 第5共和國의 基本理念인 民主, 正義, 福祉를 구현할 것으로 展望된다.

#### 나. 北韓經濟의 構造的問題點과 體制變化

北韓은 1960年代의 第1次7個年計劃의 失敗에 이어 70年代의 6個年計劃도 失敗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根本的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첫째, 國民總生産의 20%以上을 넘는 軍事費負擔이 開發財源을 잠식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는 先進工業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을 어렵게 하여 開發財源의 調達과 특히 技術革新의 차질을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對外資本協力を 시도하고 있으나 國際金融市場의 여건이 60年代보다 크게 不利해졌으며 産業構造의 國際適應力이 없기 때문에 元利金償還에 큰 困難을 일으키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 自然資源의 制約과 國內市場의 狹小등을 無視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계속 추진한 결과 産業間의 不均衡을 심화시켜 成長速度를 鈍化시켰다. 결국 北韓은 제한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여 資本의 浪費가 많았고 막대한 軍事費負擔과 閉鎖的인 自給經濟體制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經濟開發에 失敗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北韓은 經濟成長의 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그들의 體制를 轉換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있는데 그 까닭은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과 技術의 落後性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開放體制로 轉換하려면 産業構造와 開發戰略에 있어서 國際市場의 適應力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執權層이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이다.

더우기 東歐諸國의 改革이 항상 蘇聯의 反應을 의식하면서 행하여졌으나 결국 그것은 蘇聯自體의 根本적인 改革없이는 어려운 作業임을 알게된 바와 같다.

根本적으로 北韓體制의 원동력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自體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路線이 變化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既存權力集團의 死亡 및 權力暗鬪등으로 인한 權力體系의 再編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勢力的 浮上과 自己完結的 自體矛盾의 修正을 위한 政策變化가 있을 때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강하게 作用하여, 南北對峙의 狀況的 認識의 범위내에서 調整期, 緩衝期라는 名目下에 部分的인 合理化, 實用化의 改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統一力量과 經濟發展力量 및 社會正義를 具顯하기 위한 統合力量을 계속 培養해가야 할 것이다.

